

미추홀 살아간다

미추홀,
안부를 묻는다
일상 2020

제1회 학산백일장 - 26인의 일상 이야기

목차

발간사	4
들어가며	8
코로나시대 속 글과 그림으로 전하는 미추홀 사람들의 '일상'	
미추홀, 안부를 묻다 - 일상	16
- 제 1회 학산백일장 수상작	
#덕분에, 함께, 힐링, 위로 _ 일반부 (수필)	
안부 유수현	18
손톱을 정리한 바퀴벌레, 그리고 아빠 심유진	26
오늘도 우리는 안녕합니다 김현정	36
도전, 새 세상 송병화	42
바닥을 치고서야 발견한 또 다른 세상 김성령	50
#코로나와 나의 일상 _ 청소년부 (수필)	
나의 완벽한 계획 송아현	60
나의 감정들 김지원	66
여기 지금, 우리 최혜빈	72
상처많은 번데기 권유민	78
코로나19와 함께 시작한 내 인생 첫 중학교 1학년 김서연	82
인생에도 봄은 옵니다 인가은	86
변화된 평범한 일상 최지율	92

#코로나와 나의 하루 _ 초등부 (그림일기)

나의 무서운 친구 최빛찬	98
할머니 집 가는 길이 바뀐 날 김건우	100
코로나도 봉사를 막을 수는 없어! 이한결	102
나의 연보라 책가방 차유진	104
태권도로 코로나 퇴치 이한비	106
코로나 물러가라!!! 윤시은	108
특별한 하루 강승아	110
호모코로나쿠스 최혜정	112
일상의 회복을 꿈꾸며 이주혁	114
태권도와 코로나 한동현	116
코로나로 시작된 내 모습 황규한	118
180도로 달라진 학교 박지원	120
어항을 만드는 날 송시우	122
바닷가 나들이 황아민	124

나가며

백일장 수상작에 담긴 일상의 심오함 (협)아카이빙 네트워크 연구원	126
--	-----

겨울이 지나가면,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계속된다.

발간사

희망찬 한 해를 기약하던 연초부터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가 찾아와,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은 멈춘 것만 같습니다. 그동안 당연시하던 삶의 방식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뉴노멀’의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는 지난 방식을 답습하기보다는, 서로의 삶의 태도를 맞대어 현명한 삶의 방향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변화와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안부를 묻고 싶습니다.

미추홀학산문화원은 코로나-19로 문명사적인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한 올 한 해를, 서로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고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갈 세상을 맞이해야 하는지 그 대안을 모색해보는 다양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학산마을영화’는 미추홀의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이 시대를 어찌 살아내고 계는지 그 삶의 현장을 담았고, ‘학산포럼’은 코로나 이후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생태적 완충성과 실천 방안에 대한 담론의 장을 열었습니다.

‘시민창작예술제 학산마당극놀래’는 미추홀 주민들이 모여 코로나 재난의 경험을 공연예술로 승화시킴으로서 공감과 위로, 도전과 용기 등을 선사하는 공동체 예술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살아가는 미추홀 주민의 일상을 인터뷰와 수필, 그리고 그림일기로 담은 마을지 〈미추홀 살아지다3 - 미추홀, 안부를 묻다〉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지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미추홀 시민 8인의 구술 인터뷰를 엮어낸 〈삶〉, 그리고 제 1회 학산백일장을 통해 미추홀 주민들이 기록한 수필과 그림일기를 엮어낸 〈일상〉 두 권으로 구성했습니다.

지금울 살아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이 곧 역사입니다. 미추홀학산문화원은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기록하여 2020년의 미추홀의 살아있고, 사라지는 변화의 역사를 기록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지역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를 모아내고, 정리하는 작업은 시민공동체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미추홀구 지역문화를 풍성하게 만드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가면, 어김없이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계속되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미추홀구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위로를 나누고, 서로 간의 연대를 통해, 현재의 삶을 지켜내고, 미래로 함께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2020.12.

미추홀학산문화원장 정형서

코로나 시대 속

글과 그림으로 전하는

미추홀 사람들의 '일상'

들어가며

미추홀의 안부를 묻다

2020년 코로나19 속에서 미추홀에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의 일상의 변화와 안부를 모아내고자 제1회 학산백일장 <미추홀, 안부를 묻다>를 개최했다. 작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만나 안부를 나누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잘 지내고 있는지, 밥 한번 먹자는 흔한 인사도 건네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학산문화원은 백일장을 통해 사람들이 전해주는 글과 그림을 모아내어, 지쳐가는 일상 속 공감과 위로를 전하고, 안부를 나누고자 했다.

‘미추홀, 안부를 묻다’라는 주제로 열린 백일장 작품공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제1회 학산백일장 ‘미추홀, 안부를 묻다’]

|| 공모기간 || 10월 19일부터 11월 16일까지

|| 공모대상 || 미추홀 주민 누구나

|| 참여부문 || 초등부 - 그림일기

청소년부 및 일반부 - 수필

|| 세부주제 || #코로나와 나의 하루

#덕분에, 함께, 힐링, 위로

#코로나와 나의 일상

|| 접수방법 || 메일(수필) 및 우편 및 방문(그림일기) 접수

한 달여의 공모 기간에 8세부터 72세까지의 아이, 엄마, 할머니 그리고, 학생, 취준생, 사회초년생, 마을활동가 등 145명의 미추홀 다양한 사람들의 다채로운 이야기가 모였다.

그리고 안부를 모으는 과정 속, 따뜻한 장면들을 만날 수 있었다.

- 우편함에 꽂히는 소중히 포장된 그림들
- 그림일기를 들고 문화원을 방문하는 학생과 부모님의 긴장된 얼굴
- 빈 메일함에 울리는 '새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알림 메시지
- 메일 속 고심하여 썼을 인사말
- 그림에 묻어있는 크레파스와 물감 자국들
- 쓰고 지우고를 반복한 글자와 줄을 그었던 흔적
- 손글씨로 한땀 한땀 써 내려간 원고지

글과 그림 속 일상 속 가치를 발견하다

11월 18일 진행된 초등부 심사는 그림일기들을 한자리에 펼친 가운데 진행됐다. 심사를 맡은 도서출판 딸기책방 위원석 대표와 인천대학교 조형예술학부 권순학 교수는 아이들의 그림을 한 점, 한 점 꼼꼼히 둘러보고, 조심스레 14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심사위원들은 코로나19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전하는 말을 남겼다.

“초등학생들은 이 어려운 시기를 어찌 지나나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보내 준 그림과 사연들을 보며 어른들보다 더 밝고 건강하게 지낸다는 걸 알게 되어 기쁘고 안심이 됩니다.”

심사위원 위원석(도서출판 딸기책방 대표)

“일기라는 형식에서 어린아이에게서 보고 싶고 기대하는 것은 개인적이고 일상을 다르게 바라보는 창의성일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2020년의 하루를 간접적으로 경험한 점에서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심사위원 권순학(인천대학교 조형예술학부 교수)

이어 11월 20일에 진행된 청소년부와 일반부의 심사는 문계봉 시인과 이재은 작가가 맡았다. 심사과정은 수북하게 쌓인 수필 작품들을 한 편씩 읽어 내려가며, 인상 깊은 구절을 밑줄로 그어가며, 문장이 주는 여운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청소년부 7편, 일반부 5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심사 후, 두 심사위원은 작품들에 대한 소회를 차례로 남겼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키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글로 만날 수 있어 반가웠습니다. 직시하고, 질문하고, 견디고, 바라보고, 이겨내는 과정을 세심하게 혹은 솔직하게 작품에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차분한 문장에 안정을 느꼈으나 청소년다운 시선과 감각을 거칠게 내보이고 있는 작품에 마음을 뺏기기도 했습니다.”



“글로 자신과 세상을 표현하는 일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추홀구민이 소중한 작품을 보내 주셨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잠식당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생활을 바라보고 사회를 인식한 시선들이 반가웠습니다. 저도 심분 공감하고, 따뜻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용기를 내서 마음의 창을 열어주셔서, 개인적인 경험을 재치있는 필체로 드러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심사위원 이재은 (작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미증유의 재난은 청소년들의 삶 또한 모든 면에서 변화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청소년들은 생각보다 진지하게 또 발랄하게 극복해 나가고 있더군요. 글을 읽으면서 정말 놀랍고 대견했습니다. 글의 수준도 고르게 뛰어났습니다. 기성세대로서 청소년들이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열어가는 주체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속속들이 영향을 미쳤고 그로 인해 우리는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삶의 양식들을 전향적으로 바꾸어야 할 문명사적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소통은 단절되고 불신은 증폭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희미해질 때 그 짐승의 시간을 돌파하는 힘은 바로 끊어진 인간적 연대를 복원하는 것이며 그를 통해 인간에 대한 희망과 예의

와 엄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번 학산문화원 백일장에 응모된 글들을 통해 나는 그 희망의 싹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고른 수준의 글들 속에 표출된, 절망을 딛고 피워내는 희망의 싹들은 이후 코로나 시대 이후를 열어가는 유력한 힘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심사위원 문계봉 (시인)

수상작품 발표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수상작품 발표는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된 <마을, 안부를 묻다> 온라인 상영회에서 각계 각층 미추홀 주민들의 삶의 현장을 영상으로 들여다봄과 동시에, 백일장 수상작인 글과 그림으로 일상의 안부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작품이 영상에 뜰 때마다, 글과 그림의 울림이 전해졌다. 지금도 유튜브 영상의 실시간 댓글에는 작품이 전한 감동과 더불어 수상자의 환호가 오롯이 남겨져 있다.

작은 시상식

학산백일장의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는 시기에 열렸다. 고심을 거듭한 끝에 12월 5일, 시간대별 부문별 시상식을 진행했다. 상을 전함과 동시에 그동안 만나지 못하고, 작품으로 이야기를 전해준 분들과, 서로 눈을 처음 바라보고 서로의 안부를 나눌 수 있었다. 부문별 대상 수상자 3명은 짧은 소감을 남겼다.

“처음 들었을 때, 멍-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행복해해서 좋았고, 수상해서 좋았어요.” 최빛찬(초등부 대상)

“엄마에게 감사하고, 친구에게 고맙고, 문화원에게도 감사합니다. 모두 코로나바이러스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송아현(청소년부 대상)

“코로나, 안부, 일상 따뜻한 단어가 붙어 있는 게 눈에 띄었고 저에게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따뜻한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제 작품 제목이 ‘안부’ 였는데, 지금 힘든 상황을 서로의 안부로 이겨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유수현(일반부 대상)

‘일상’을 지켜내는 힘이 되길

이렇게 백일장을 통해 전해진 미추홀 주민들의 이야기 26편을 책에 수록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지금의 안부를 전하고자 한다.

‘일상’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한다.

코로나19 속에서 미추홀 주민들이 힘들게 지켜내고 있는 일상을 글로 만날 수 있었다. 각자의 나이, 역할 속에서 살아가는 섬세한 이야기들이 담겨있다. 팬찮은, 어찌면 전혀 팬찮지 않은 어긋난 일상에서 공감과 위로를 나누면서 우리의 ‘일상’을 지켜가는 따뜻한 힘이 되기를 바란다.

백일장을 통해 함께 따뜻한 안부를 나눠준 145명 미추홀 주민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미추홀, 안부를 묻다 : 일상

제 1회 학생백일장 수상작

일반부 당선작

덕분에, 함께, 힐링, 위로



일반부 대상

안부

유수현

인천대학교 2학년

지옥 같은 감염증은 모두에게 나뉘었다. 처음에는 남 일 같았고,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는 ‘그럼에도 내 일은 아닌’ 것 같았으며 기어코 우리의 일이 되어버린 병의 이름. 받침 없이 건조한 그 세 음절 뒤로 형용하지 못할 불안이 에워싸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청춘과 최선은 굳이 어울리지 않아도 되는 낱말이면서도 끈질기게 붙어 다녔다. 청춘, 너희들은 최선을 다해 젊음을 누려야 해. 섬광처럼 빛나면서도 겸손하고 푸르게 흩날리는 봄이었다가 금세 앞길을 묵묵히 닦아 놓은 가을이 되어야 해. 철없음과 성숙함을 동시에 강요받는 우리는 위태로우면서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목 놓아 웃을 수 있었다.

그 무렵 나는 다른 감염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여름. 사진 속으로나 존재했던, 혈관 한 구석에나 간신히 숨을 붙이고 있었던 아빠의 부고와 함께였다. 쓸데없이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나에게 어느 교수님보다도 젊음 그 자체보다도 무거운 과제를 준 셈이었다.

나는 왜 좌절할까. 단 한 번도 그의 것인 적 없는데 버림받았다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 트럼프 카드 짝을 맞추듯이, 그러나 이미 오래 전 한 장을 잃어버려 홀수인 것을 두고 내내 무너졌다. 나는 나의 슬픔을 해명해야만 했다. 아무도 요구하지 않은 문제에 답을 찾으라 바빴다. 채 지문도 읽어 내리지 못한 심정인 나에게 선불리 던져지는 위로들이 따갑고 아팠다. ‘많이 허전하고 아프지?’ 아니, 나는 온전했다. ‘속상해

서 어떻게 해.’ 애당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존재하긴 했었나? ‘다 잊힐 거야.’ 어떻게 제 부모님이 해주신 밥을 먹고 그렇게 말 할 수 있지?

당시 일기에서 나는 스스로를 곧잘 ‘지지대가 뺏혀 나간 녀쿨’이나 ‘섬’으로 묘사했다. 코로나 방역 단계가 올라감에 따라 거리두기가 강화된 것을 좋아하기도 했다. 그만큼 철저히 혼자이고 싶었고 괜한 애정을 담아 자꾸만 나를 밖으로 꺼내려는 친구들에게 응당한 거절을 하고 싶었다.

내가 필요했던 것은, 그러니까, 위로가 맞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위로하는 말들은 몽땅 틀렸다. 나는 사랑한 적 없으므로. 간절했던 것은 그저 나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었다. 께안아 줄 품이었다. 구경꾼이나 말 많은 입술 두 쪽이 아니라. 애뜻한 자식의 마음이라는 틀에 끼워 넣어 나를 재단할 손아귀가 아니라.

그렇다고 항상 불행하지는 않았다. 휴학을 하고, 대신에 일을 했다. 냉정하기 그지없는 돈 쪼가리가 가끔은 나를 위로해주었는지도 모르겠다. 나를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렸고 내게 그렇게 큰 관심까지는 없는 미지근한 관계들에 의지했다. 밤이면 이유 모를 추위에 아까운 눈물을 훔치면서도 날이 밝은 후에는 용케도 즐거웠다. 새로운 공간에서 나는 꼭 슬퍼야만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불쌍하지도 않았고, 위태로워서 걱

정해야 할 사람도 아니었다. 그게 희열을 주었다.

그럼에도 나는 비어 있었다. 텅 비어서 누군가 ‘너 괜찮냐’고 툭툭 마음을 두드린다 해도 심심한 대답 한 마디 해내지 못할 만큼, 나는 많은 사람을 원망했다. 언젠가는 귀찮고 형편없어서 대충 아, 괜찮다고 밀어내던 사람의 온기가 아쉬워진 꼴이라니. 열과 성을 다해 미워한 온갖 것들 가운데서 최고는 나였다. 외롭고 사랑받지 못하며 사랑하지 못하는 나 자신.

내게는, 그래, 감염증처럼, 나를 잡아먹을 듯 머리 위로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가 있었다. 그것은 이제야말로 정말 괜찮아진 것처럼 나를 내버려두다가 간헐적으로 저작 운동을 했다. 나는 처참하게 뭉개지고 부서지고 잘근잘근 씹혀서 끝내는 그 어금니 틈에 널브러진 채로 다음, 또 다음의 아픔을 기다렸다. 위 아래로 솟구쳤다가 잠잠해지는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신호들은 생동감이다. 심장의 바이탈사인 혹은 주식의 주가변동이나 땅으로부터 전달받는 S파 같은 것. 그러나 나에게서는 죽음의 신호였다. 안에서부터 끓어가고 있다는 감염의 신호.

그래도 확실히 시간은 위대했다. 아무 내색 없이 무심한 흙바닥 아래로 이따금 믿을 수 없는 삶의 흔적을 화석으로나마 발견하듯이. 고통에 찬 울부짖음도 환희와 축제의 떠들썩함도 보이지 않는 시간에 차곡 차곡 묻혀갔다. 나는 더 이상 답을 찾지 않았다. 언뜻 포기한 것도 같았지만 시야는 포기를 양분삼아 넓어졌다.

때로 이해하기보다는 느껴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내가 서류한 장짜리 '종이야빠'를 사랑하고, 있지도 않았던 그의 빈자리에 상실감을 느끼고, 영정사진에 담긴 두 뺨과 눈동자에서 무심결에 읽히는 삶의 흔적을 발견할 때에 거기에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당연히 미래에도 나의 자리가 없다는 것을 끝끝내 받아들이게 되는 일처럼. 이유 없는 슬픔 또한 슬픔이며 감정을 저울에 올릴 수 있는 심판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그리하여 내가 아프다면 아픈 것이 맞다는 시시하고 당연한 깨달음과 마주하는 것처럼.

나의 유레카는 시간을 대가로 가져갔다. 스물 하나. 스물 둘. 주변의 친구들이 사랑과 우정과 경험에 헌신할 때에 나는 거울 속 나에게 헌신했다. 추운 밤 나를 보듬어 안아주고 좋아하는 것들을 사고 행복한 일을 했다. 지지대 없는 넝쿨에는 묘목을 심어주고 외딴 섬에는 별을 수놓아 주었다. 너, 죽지 말라고. 너를 사랑하는 이들을 원망과 질타어린 시선으로 상처주지 말라고.

사랑
받으라고.

나는 이름 맨 앞자리가 바뀌었다. 누가 보나 굳이, 라는 말을 꺼낼 만한 일이었고 심문을 받으러 가 마주한 판사님마저도 굳이, 하며 고개

를 가웃했다. 내가 그렇게 해야만 했던 이유는 모른다. 매일같이 변했다. 어느 날은 지나치게 슬피하고 아파한 나머지 내 이름 석 자에도 설움이 붙어 그런 것 같다가도, 어느 날에는 그저 엄마의 헌신과 사랑을 상징하고 싶었다. 그런가하면 또 문득 아빠에 대한 미움인가. 또 문득, 내 의지는 묻어있지 못했던 그와의 관계에 직접 무언가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아니 혹은 전부일까? 그저 내가 '느낀' 것은 함부로 나를 평가하지도 재촉하지도 않는 종이 위로 내 마음을 쏟아내는 행위가 이루어 말할 수 없는 위안을 주었다는 것이었다.

그 후로는 으레 그렇듯 축하를 받았다. 다시 태어난 것을 축하해. 무슨 말을 들어도 서늘하게 굳기만 했던 심정이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메마른 땅 마냥 내게 향한 애정을 잘도 받아 마셨다.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가끔 새벽에도 깨어나 이 기쁨이 행여 꿈은 아닌지 확인해야 했다. 나를 괴롭히던 부재중 연락들은 이번에는 따스하고 든든한 지지로 남았다. 그때부터 어렵풋하게나마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나의 고통이 무엇을 말미삼아 자라났는지.

편지를 받았다. 소중할 것도 없고 별 다를 것도 없던, 심지어는 꼬박 이 년을 소식 한 번 전해들지 못한 이로부터의 선물이었다. 그는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다. 다른 것 없이 가만히 지켜보다가 이번에는 함께 축하해주고 싶었노라고.

그런데, 잘 지내냐고.

나는 뜨겁게 울었다. 내내 외면 받던 내가 갑자기 보살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왜 그리도 늦게 알았을까. 나를 걱정하는 이들도, 내 상황도, 그들의 눈빛도 소문도 어느 하나 잘못 한 것 없이 다만 위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어쩔 까맣게 몰랐을까. 사랑을 내 안으로 들이기 위해서 비어 있는 내 안을 채워야 한다는 걸 알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들여야 했나.

‘안부’의 따뜻함이 참 놀랍다. 보잘 것 없이 숨어 있는 조심스럽고 은근한 호의가 사랑스럽다. 일상이 녹아 없어지고 화면을 마주해야만 진득하게 얼굴을 볼 수 있는 삶 속에서, 가야할 곳을 가기만 하면 만날 수 있었던 수많은 작고 사소한 인연들에게서 만남은 너무도 귀해졌다. 누군가를 만나려면 더 많은 노력이 요해지는 우리의 오늘 내일에 인사 치레라 여겨졌던 안부 한 마디가 전해주는 그 성의가 또 놀랍다.

그 자그마한 보통의 것이 마치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잇기 힘든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걸 알기나 했다. 무심코 ‘잘 지내냐’는 직선 몇 개가 겹쳐진 글자들로 우리는 또 누군가의 오늘을, 그렇게 내일을 구원해줄지도 모르는 일이다. 인생은 간혹 허무맹랑할 정도로 사소하니까.

그러니 이제, 내가 묻겠다.

오늘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고 있나요? 혹여 서글픈 감염증을 앓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당신의 발걸음에 미움과 슬픔이 묻어 있다 해도 두 발이 걸어갈 다음 모퉁이에 이른 봄꽃이 피어있기를

언제고 이 글을 읽은 당신을 위해, 온 마음으로 바랍니다.

,





일반부 은상

손톱을 정리한 바퀴벌레, 그리고 아빠

심유진

미추홀 거주 청년

나는 한 때, 벌을 꿈꿨다. 정해진 자리와 정해진 일, 공장에서 찍어 내 듯 반복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꿈꿨다. 정확히 말하면 최정점인 여왕벌 보단 일벌을 꿈꿨다는 것이다. 일벌을 꿈꾸던 애벌레는 벌집 안에서 꿈틀거리며 참 애썼다. 벌이 되려고.

하지만 성충이 돼서야 깨달았다. 난 개미 유충이었던 걸. 내 몸엔 내가 꿈꾸던 일벌의 멋진 노란 줄무늬도, 포실포실 목도리도 없었다. 그렇게 땅에 바싹 엎드려, 개미로 살아갔다.

성충이 된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하며 지냈다. 미래만을 꿈꾸며 멀리 보던 유충 꿈틀이는 이제 개미로서 땅만 우두커니 내려다보며 지내게 되었다. ‘난 날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꿀을 찾아 자유로이 꽃들 사이를 드나들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개미는 매일 생각했다. 그렇게 개미로서 살아가던 어느 날, 한순간 눈을 뜨었다. 개미의 생활은 내가 꿈꾸던 벌의 생활과 다르지 않았다. 내가 꿈꾸던 건, 벌의 외향이 아니었다. 벌의 날 수 있음도 아니었다. 그저 벌의 체계적인 일, 그에 대해 반복적 그리고 전문적으로 진행되는 일상. 그것을 꿈꿨던 것이었다. 개미로 지내게 된 것이 크게 나쁘지만은 않았다.

바쁘게, 개미는 정말 바쁘게 지냈다. 개미는 열심히 설탕을 모아 나뭇잎을 끌어 가족을 떠나 혼자만의 공간에서 다시금 개미로서 삶을 살아갔다. 그리고 2020년 초, 내 ‘개미의 삶’ 동화는 끝이 났다.

‘COVID-19’이라는 다큐가 내 개미 등딱지 위 신발이 되어 날 짓밟아 터뜨렸다.

열심히 다니던 공장과 물류센터는 모두 일이 줄어 인원을 줄여나갔다. 신생 개미인 나는 가장 첫 번째로 군집에서 쫓겨나왔다. 일용직 일자리를 찾아 다녔다. 먼지 때문에 눈을 깜빡일 때 마다 꺼끌거리는 CD 포장회사, 한국 화장품을 수출하는 중국 쇼핑몰의 박스포장 회사. 최저시급이든 식대를 빼면 최저시급이 안되든 일단 일이 된다면 무조건 다녔다. 더 이상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개미의 삶은 끝이 났기에.

그런데 마지막에 갔던 중국 쇼핑몰 회사가 화근이었다.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중국인과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 지원이 불가능했다. 사실상 아무 증상이 없어 말 안하고 지원하여 일하면 그만이었지만, 만약이라도 나 때문에 코로나가 퍼진다고 생각하면 아찔했다. 정확히 말하면 그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할까 두려웠다.

나는 집 한구석에 멀뚱히 그저 내가 열이 안 나기만을 미친 듯이 바랬다. TV를 봐도 저 연예인은 얼마를 벌까, 저 CF를 찍고 얼마를 받았을까 온통 돈 생각 뿐 이었다. 그래서인지 한 채널에서 머물지 못하고 계속해서 리모컨을 꺾꺾 누르며 채널을 돌려댔다. 한참을 둘러보다, 한 영화채널에서 손이 멈췄다. 영화 ‘김씨표류기’를 방영하고 있었다. 내용은 뻘뻘하게 살아오던 직장인이 한강 가운데 무인도에 정착하게 되고

원초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자신의 일상에 애정을 가지게 되는,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히키코모리 즉, 은둔형 외톨이인 한 여자의 시각이 담긴 작품이다.

그 영화를 멀뚱히 보고 있자니 옛날 생각이 났다. 아빠와 지금과 같이 TV로 '김씨표류기'를 볼 때였다. 영화 속 여주인공은 매일 방 안에서만 지내며 걸보기에 폐인처럼 살아가지만 나름대로 체계적이다. 정확한 시간에 기상해서 아침운동, 칼로리를 정하여 옥수수 통조림 속 낱알 개수를 세어 먹고 다시 운동, SNS에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네티즌과 소통하고 다시 저녁이 되면 명상을 하며 잠이 든다. 이를 보며 아빠는 '집구석에만 있나, 아이고야.. 인나서 밥 묵고 뭐 하다가 자뿌든 그제 사람이가, 바퀴벌레지' 걸쭉한 사투리로 한 소리 하곤 했다. 그 생각을 하고 나니, 아빠 볼 면목이 없었다. 아빠 딸, 성실한 재미는 이제 바퀴벌레가 되었다.

별이 되지 못한 재미로 살아가길 3년이 조금 안된 시점, 내 등은 코로나에게 짓밟혀 터지고 바퀴벌레로 변모하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 창문을 열고 씻고 난 뒤 밥을 먹는다. 지원하지도 못할 희망고문 뿐인 아르바이트 앱을 멍하니 바라보다 다시 잠이 들고, 다시 일어나선 마스크를 쓰고 잠옷 채로 집 앞 할인마트에서 맥주를 사와 과자와 계란 후라이 몇 장과 함께 먹고 다시 잠이 든다. 그야말로 더듬이 없는 바퀴벌레 한 마리였다.

다시 똑같은 바퀴벌레 일상이 진행되고 있을 즈음, 아르바이트 앱에서 재택근무를 발견했다. 번역, 디자인 등 많은 재택 아르바이트가 있었고 그 중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바이럴 마케팅 대리 작성 업무를 지원했다. 바이럴 마케팅이란 브랜드 혹은 제품 홍보를 위해 짜여진 원고를 블로그나 SNS에 올려 진행되는 마케팅을 말한다. 회사에서 주는 광고내용을 받아 내가 원고를 작성하여 컨펌 후 블로그에 게재하는 것이다.

일을 시작하기 앞서 노트북이 필요했다. 오랜만에 본가에 방문했다. 엄마는 코로나 때문에 일은 잘 하고 있느냐 물었고 난 대충 얼버무렸다. 아빠는 대충 눈치를 챘는지 “코로나 때때 나가라 카른 고마 때려치아라! 지 회사원 마스크 챙길 생각을 해야지 찢라뿌는 회사는 고마 댕다캐라!”라며 괜스레 더 목소리를 높였다. 난 쉬는 날 온 거라고 어영부영 넘어가며 머쓱함에 머리를 금적였고, 난 순간적으로 더듬이를 숨기는 바퀴벌레 같은 내 모습에 씩씩해졌다. 바이럴 마케팅 일을 시작하고 수입이 조금이나마 생겼다. 다시금 설탕을 모으는 재미가 된 기분은 들었지만 기지개를 켜고 주변을 둘러보면 머리카락이 늘어진 방바닥, 말한마디 하지 않아 굳어버린 얼굴 근육, 나는 잠옷바지 입은 바퀴벌레 한 마리일 뿐이었다.

재택 아르바이트를 한 지 두 달이 넘어간 시점, 여러 재택알바를 하

며 집안에서만 지냈다. 유일한 동선은 편의점과 할인마트, 마스크를 사러 약국이 전부다. 그 마저도 밖에 나갈 일이 거의 없으니 마스크를 사는 빈도도 적었다. 회사원 출근시간이 지나 도로가 조용해질 쯤 느즈막히 일어나 씻고 노트북 들여다보고, 출출해지면 생라면이나 과자를 먹으며 일을 하다 오늘 할 일이 떨어지면 대충 끼니를 때우고 핸드폰만 본다. 그러면 챗바퀴처럼 내일이 온다.

한 날은 유튜브에서 흥미로운 영상을 발견했다.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절대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이 문구는 무언가의 문이 들었다. 평범했던 삶에 코로나는 쉽표처럼 문장의 중간을 끊으며 들어왔다. 그렇다면 코로나 종식 후엔 쉽표 이후의 문장 즉, 사람의 삶은 코로나 이전과 같이 진행 되는게 아닌가? 영상은 코로나를 쉽표가 아닌 ‘마침표’ 라고 말하고 있었다.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 형태가 많아지고 비대면 배송 등 비대면 서비스가 활발해진 시점, 사람들은 이에 적응하기 시작했고 기업 고용주들도 출퇴근 근무와 재택근무의 업무효율에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않은 바, (오히려 효율이 좋아졌다는 평도 있다.) 코로나 종식 이후에는 코로나 창궐 이전과 달라진 사회가 도래할 것 이라는 내용이었다.

영상을 보고 나니 자기합리화인지 깨달음인지 무언가 끝없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신종플루와 에볼라, 메르스를 지나며 코로나만큼 생명적, 사회 경제적 위협이 된 질병은 없었다. 코로나의 과급력은 이미 질병

수준을 넘어 하나의 사회현상이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 변화는 곧 시장의 변화를 야기했고 이는 산업, 업무 체계 변화로 이어졌다. 코로나 종식 이후의 사회가 전과 같아질 수 없다고 가정해보자. 코로나를 계기로 바퀴벌레가 된 나는 어찌면 한순간 비극을 맞이하여 등 터진 개미가 아니라, 언젠가 다가 올 새로운 모습의 사회 속에 살아갈 신종 개미의 유충이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맴돌았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그놈에 벌레를 벗어나서 한 떨기 꽃이나 될 순 없는 건지, 끝없이 떠오르던 생각을 마무리하려 기지개를 켜다. 기지개를 켜며 주먹을 짝 쥐는데 손바닥이 아파왔다. 일을 쉬며 손톱을 깎지 않아 긴 손톱이 주먹을 쥘수록 손바닥을 찢어왔다. 손을 쥐었다 폈다 해보니 꼭 사람 사는 모습 같았다. 낮이 되면 손을 펴듯 각기 다른 곳으로 퍼져 나가고, 다시 퇴근을 하면 손 한가운데 주먹으로 모이고, 다시 퍼졌다 모인다. 손을 보며 깨달았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의 손은 안전을 위해 계속 주먹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리되지 않은 손톱, 구성원 간의 서먹함은 주먹을 아프게 한다.

몇 달 전 갔다 온 본가에서의 분위기가 떠올랐다. 오랜만에 주먹으로 만난 우리 가족은, 내가 일할 때는 바쁘다며 연락 못하고, 바퀴벌레가 되고 나서는 면목이 없어 연락을 안하다보니 서로 모르는 근황도, 멧쩍은 순간도 많았다. 손톱을 정리하지 않으면 주먹상태에선 손바닥이 꽤나 아프다. 난 손톱자국이 패인 손바닥을 바라보다 핸드폰을 다시 집

어 들었다.

또각또각 손톱을 자르듯 툭툭 아빠 번호를 누르고 전화를 걸었다. 아빠는 전화를 받자마자 ‘어보세요’도 없이 한마디 하셨다. ‘잘렀나?’ 느닷없이 노트북을 가져가더니 몇 달 간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전화를 하니, 급하게 직장부터 묻는 것도 당연했다. 헛웃음이 나오며 내 그간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놓았다. 아빠와 나 사이의 손톱을 깎아나가며 한참이나 통화를 했다. 다시 만날 주먹에선 더 이상 손바닥이 아프지 않게 하리라 다짐하듯 아빠와 더 많은 대화를 이어나갔다. ‘막내딸~ 엄마한테도 전화해줘’ 아빠 목소리 옆으로 엄마의 목소리도 들려왔다. 다들 내 연락을 기다렸다는 듯 들뜬 목소리였다. 그간 일하느라, 일을 못하느라 신경 못 썼던 가족에게서 다시금 따뜻함이 느껴져 목구멍이 간지러웠다. 오랜만의 손바닥 폼 속이었다. 그렇게 코로나로 거의 한 해를 채운 지금, 휴지통에 쌓여가는 마스크는 당연해지고 편의점 가느라 잠깐 신은 양말도 답답하게 느껴졌다. 코로나는 일상이 되었고 마스크는 사람의 예의를 결정짓는 척도가 되었으며 이 시대의 영웅은 영화 속 로봇이 아니라 의료인이 되었다.

‘이쁜 딸! 밥 뭐 못나?’ 그 날 이후 점심시간마다 아빠에게 전화가 온다. 사회생활을 할 땐 바빠서 못 받거나 주위 직원들의 눈치가 보여 잘 받지 않았을 전화를 이제 매일 점심시간, 퇴근시간 마다 주고받는다. 아빠는 혹여 딸이 라면만 먹고 살진 않을까 매일 검사를 하듯 물어봤고, 난 그 덕에 오늘은 물국수, 오늘은 간장계란밥, 오늘은 미역국 끓여

먹었다며 보고를 올렸다. 그러면 아빠는 ‘우리 똥깡아지 잘 못네~’하며 칭찬도장을 하나씩 찍어주셨다.

더 이상 가족과 연락하며, 혹은 본가에 방문하며 어색하지 않다. 원치 않게 재택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지만, 그만큼 더 많아진 내 시간엔 더 가족과 통화하고 만날 수 있었다. 예전엔 본가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나를 반찬 하나라도 더 가져가라며 아쉽고 아련하게 바라보던 엄마가 이제는 본가만 내려가면 “백수 아가씨, 아직 반찬값 정산이 안됐던데요?”라며 장난도 걸어온다. 그만큼 우리의 만남은 편안해졌다. 가족과 나는 더 이상 서로 그립고 아련한 존재가 아닌 당연하고 항상 즐거운 사이가 되었다.

코로나는 나에게서 삶의 계획표를 앗아가고 ‘시간’을 주었다. 잠깐 쉴 시간, 그리고 난 잠깐 멈춰서 주변을 돌아봤고, 여유를 얻었다. 시련 일 수 있다. 앞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이십대 청춘에 걸림돌일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말한 ‘손톱’을 정리하며 난 그 돌에 잠깐 기대 쉬려고 한다. 이제 나는 주먹을 아무리 쥐어도 아프지 않은, 아빠가 말하는 ‘집에서 밥묵고 자뿌는’ 바퀴벌레다. 난 벌이 되지 못한 유충을 넘어, 등터진 개미를 지나 반들반들 궁둥이에 반듯한 손톱을 가진 나름대로 혼자 해피한 그런 바퀴벌레가 되었다. 나름대로, 내 멋대로 적응해 나아간다. 앞으로 백신이 나와 이 모든 상황이 종결될지, 아니면 변종 바이러스가 나와 더욱 척박해질지 모르는 이 상황 속, 나는 더 이상 먼 미래를 보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나는 행복한 바퀴벌레로 오늘도 아빠와 통화를 한다. “아빠, 딸래미 오늘은 김치볶음밥 해먹었다.”

삶은 매번 위기를 마주한다. 사회도 매번 다른 위기를 마주한다. 모두가 초면인 내일을 살아가는 생활, 어떤 위기를 마주할지 모르는 삶이다. 그렇다면 절망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그 위협에 적응하자. 그리고 더 수월해질 내일을 꿈꾸자. 그렇게 나는 삶에 적응해 나간다. 오늘도 바퀴벌레는, 반듯해진 손톱으로 아빠와 통화를 하며 행복하게 적응해간다.





일반부 은상

오늘도 우리는 안녕합니다

김현정

아내, 엄마, 끼니 제작자, 세탁담당자, 학습매니저,
그 외 시간에는 그냥 김현정

고요하다.

큰 소요 뒤의 짧은 고요는 그 선명한 대비 때문에 마치 귀가 사라진 것 같은 착각마저 일으킨다. 숨을 있는 힘껏 들이 쉬어 가늘고 길게 뱉는 내 숨소리가 들린다.

바야흐로 금요일이다. 아이들 셋이 모두 등교하는 날이다. 아침 아홉시, 아이들의 등교가 모두 마무리 된 시간, 마침내 고요는 찾아왔다. 열두시 십분, 막내 아이의 하교로 이 짧은 고요는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정오의 신데렐라가 되기 전까지 남은 시간은 단 세 시간이다. 이 세 시간이 소중한 음악조차 켜지 않고 커피를 내린다. 소리가 사라지면 시간조차 느려진다. 전기포트에서 컵으로 물을 따르는 소리가 조르르르륵 늘어난다. 빈 공간에 커피향이 퍼진다. 소리가 사라진 공간에 시간이 들어찬다. 커피컵을 손에 쥔 채 아이들이 서두르며 떠난 흔적을 본다. 집안을 돌아다니며 바닥에 널부러져 있는 빨랫감들은 발로 툭툭 쳐서 한 곳으로 모은다. 곳곳마다 아이들의 잔상이 음소거 모드로 보인다. 여기 이 식탁에 앉아서 온라인 수업을 하던 애, 여기 앉아서 EBS 방송 수업하던 애, 줌으로 실시간 수업 한다고 윗도리만 갈아입고 잠옷 바지는 그대로 입은 채로 앉아 엄마도 동생도 얼씬하지 못하게 하던 큰 애. 2주전까지는 남편도 재택근무로 집에 있었지. 애들이 하나씩 다 차지하고 앉아 남는 공간이 없어서 여기 있는 이 생똥맞은 싸구려 책상을 급하게 구했더랬다.

2월에 시작되어 한 두 주 정도 개학을 연기하면 될 줄 낙관했던 코로나19 사태는 1학기를 넘어, 9월 피크를 넘겨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어차피 올해는 망했어. 그렇게 생각하며 기대를 접은 지 오래다. 한 해를 통째로 모두 포기하고 나니, 가뭄에 콩 나듯 찾아오는 이 짧은 고요가 소중하다. 과장 조금 보태면 목숨 걸고 지키고 싶은 보물 같다. 누구든지 이 속으로 침범하면 욕을 내뱉게 될 것 같은 강박마저 느껴진다. 과감하게 핸드폰마저 꺼 버리고 혹시 아이들 하교시간을 잊을까 부엌 요리용 타이머로 알람을 맞췄다.

지난 9개월 동안 나는 24/7 풀타임 근로자였다. 그러니까 24시간, 주7일 연속근무자 말이다. 아이들이 번갈아 등교하던 기간에도 하루 24시간 내내 누군가는 꼭 내 옆에 있었다. 코로나19는 나에게 제정신을 지키려 이 악물고 세 번을 이미 버텨낸 신생아기를 다시 한 번 안겨줬다. 조금의 과장도 없이 글자 그대로 십 오 분마다 누군가 엄마~를 불렀다. 나중에는 십 오 분이 넘었는데도 엄마~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오히려 환청이 들릴 지경이 되었다. 어느 날, 아이들이 엄마~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 아이 두 명이 1분차로 엄마~를 불렀던 날이었다.

“니넨 엄마를 너무 많이 찾아. 니넨 셋이고 나는 하나야. 니들이 한 번씩만 불러도 난 세 번을 들어야 하는 거라고. 안되겠다. 오늘 하루는 엄마 안 찾는 날로 정해서 하루 종일 엄마를 적게 부른 사람에게 상을 줘야겠어.”

농담처럼 말했고 애들은 재미있다고 깔깔댔지만 절반은 진심이었다. 이런 나의 꼼수는 엄마는 불려야겠으나 지고 싶지는 않은 막내가 슬금 슬금 다가와 나를 손가락으로 푹푹 누르며 애절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결국 끝이 났다. 엄마 좀 그만 부르라고! 순식간에 이성을 잃고 소리쳤던 어느 날, 어안이 병병해 입 벌린 채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엄마 쉬는 시간을 선언하고 부부의 방에 틀어박혔다. 집에 불이 나거나 누군가 다치지 않는 한 절대로 엄마를 찾아서는 안 되는 두 시간을 만들고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처음 며칠은 낮잠을 잤다. 이후에는 책을 읽거나 게임 삼매경에 빠지거나 미드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문을 노크하거나 나를 다급한 일을 만들어서 슬금슬금 엄마의 간을 보던 아이들은 몇 번의 불호령 뒤에 빠르게 이 새로운 일상에 익숙해졌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집에 틀어박혀 있던 그 기간 동안 그렇게 나는 편당 한 시간, 시즌당 열 두 편짜리 미드를 4시즌이나 탐닉했다. 무료함은 창의력의 원동력이라던가. 심심했던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프로젝트를 만들어 키네마스터로 짧은 영상을 만들거나 레고로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같은 창의적인 일로 관심을 돌렸다.

동물을 마리당 생활면적을 고려하지 않고 좁은 우리에 몰아넣으면 서로 싸우고 피바람을 낸다는 이야기가 떠올랐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에서도 혼자만의 시간과 장소는 필요하다는 말이 사회과학 헛소리가 아니라 뼈에 박히는 격언이 되어 다가왔다.

어느덧 열 두 시다. 막내부터 시작하여 차례로 아이들이 돌아온다. 집안에는 소음이 먼지처럼 쌓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고요 뒤에 찾아온 소음은 오히려 활기이다. 먼저 온 아이는 후에 들어오는 아이를 과하게 반긴다. 오랫동안 못 본 절친한 친구처럼 서로의 일과를 보고하고 새로운 정보를 교환하느라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정리하면서도 말이 끊이지 않는다. 니네 겨우 반나절 떨어져 있었거든? 우습기도 하다. 학교에서 가져온 새로운 정보로 어떻게 놀 것인지 작당질하느라 정신이 없다. 그런 아이들을 보고 있자니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남긴 것이 오롯이 불편함과 괴로움 뿐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다. 행동범위를 제한당하고 집안에 묶여 있는 시간 동안 아이들은 절친이 되었다.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하던 부모님께서는 새로운 이슈가 보도될 때마다, 그러니까 매우 자주, 전화하게 되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려니 하고 서로의 삶에 쫓겨 일 년에 한 번 연락 할까 말까 했던 친구들의 안녕을 궁금해 하고 망설이지 않고 온라인상이지만 안부를 묻게 되었다. 사람들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는 멀어졌지만 정신적인 거리는 가까워진 기분이다.

당연시되던 야근과 추가근무가 사라져 죄책감 없이 칼퇴근한 남편, 아이들은 아빠와 함께 저녁을 먹는다. 식구, 음식을 함께 먹는 입이라는 의미의 가족구성원을 지칭하는 말. 가족으로 묶여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식구가 아니었던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친해지려면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여행을 가라는 흔한 말은 가족에게도 해당된다. 함께 모여 기쁘하거나 슬퍼하거나, 즐거워하거나 혹은 격렬하게 싸우고 제대

로 화해 할 시간조차 없이 각자 바쁜 현대의 가족에게 어쩌면 코로나19는 강제로 붙어 있을 시간을 만들어 준 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면 너무 앞서 나간 것일까? 가족이 붙어 있는 시간, 다시는 강제당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쩌면 가족 모두가 자각하여 자발적으로 가져야 할 시간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니 잊지 말자. 2020년을. 그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9개월을. 아직 끝나지 않은 그 시간을. 혼자 있는 시간도, 함께 하는 시간도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오늘도 우리는 안녕하다.





일반부 동상

도전, 새 세상

송 병 화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안녕하세요? 두 분과 인연을 맺은 지 얼마 안 되어 아직도 어리바리 사돈님을 알아가는 중인데 또 작은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는군요. 요즘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좀 더 미뤘다가 식을 올렸으면 좋겠는데 코로나가 금방 끝날 것 같지도 않고 양가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혼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청첩장을 보내는 결례를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파란 줄무늬 한지에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눌러 쓴 손편지와 함께 신혼부부 그림이 박힌 청첩장이 도착했다. 모바일 청첩장이 바쁜 시대를 대변하는 요즘 보기 드문 우편물에 나는 감격했다. 생각해보니 바깥사돈은 작년 딸아이 결혼식 때도 라디오 방송에 사연을 보내 진행자가 읽어준 주례사로 하객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잔잔한 감동을 준 분이다.

“아직 코로나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람들이 다수 모이는 장소는 불안해. 가지 않을 수도 없고 걱정되네” “그래도 사돈네 혼사에 참석하지 않을 수는 없지.” 남편과 결혼식 참석 여부를 두고 짧은 고민이 오갔다. 자가면역질환을 앓고 있는 나는 코로나가 출현한 이후 거의 두문불출하며 자가격리에 머무르는 집안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니 대중과 노출되는 외출이 두려운 것은 당연했다. 더구나 예식 장소는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한복판이라 신경이 곤두섰다. 질병관리본

부의 수칙을 잘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한다는 예식장 관계자의 말을 전화로 확인하고 나서 나는 코로나 발생 이후 첫 번째 외출을 시도했다. 예식이 진행된 호텔 내부는 둥근 테이블을 띄엄띄엄 몇 개씩만 배치하고 적은 인원만 앉도록 의자 수도 많지 않았다. 초대된 손님들도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친인척들이 대부분이었다. 호텔 직원들은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담긴 접시를 양손에 들고 테이블마다 가져다주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덕분에 손님들은 이동할 필요 없이 가족끼리 단출하게 식사하고 자리를 뜰 수 있었고 나의 지나쳤던 걱정도 다소 누그러졌다. 다만 예식 시간 단축으로 주례사와 식순이 많이 생략되어 새 출발의 무게와 엄숙함이 가벼워진 듯한 아쉬움이 있었다.

코로나 그림자에 막혀 봄에 예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들의 청첩장은 가을이 되자 우편함을 두드리며 나의 두 번째 외출을 끌어냈다. 이종사촌 혼사이기에 빠질 수 없어 마스크를 누르고 또 눌러 쓰며 예식에 참석했다. 첫 외출의 발을 땀 때보다 긴장감이 덜하긴 했지만 군데 군데 몰려있는 사람들을 보면 여전히 불안감이 덮쳐왔다. 예식 후 피로연장에 들어선 나는 첫 번째 참석했던 결혼식과는 사뭇 다른 낯선 장면을 만났다. 사람들은 식당 입구에 놓아둔 일회용 비닐장갑을 끼고 음식이 놓인 긴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넓은 접시에 옮겨 담은 후 자리에 앉았다. 당연한 일이었지만 처음 보는 일이라 이토록 불편한 상황을 만든 코로나가 야속했다. 나도 마스크를 쓴 채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면서 서둘러 접시에 음식을 담아왔다. 테이블 위에 설치된 플라스틱

칸막이는 나의 시선을 모두 막아 대화를 차단했고 말없이 혼자 식사를 해야 했다. 코로나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수칙을 성실히 따르고 있는 음식점 측이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사태를 만난 것이 서글퍼졌다. 친인척과 안부 한마디 묻지 못하고 얼굴도 마주하지 못한 채 음식을 먹는 것은 즐거운 식사가 아니라 주린 배에 음식을 채워 넣는 일이었다. 코로나가 출현한 이 엄중한 시기에 이렇게까지 식사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회의감마저 들며 우리 혼인 문화도 간소하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흥청망청 마음대로 먹고 수다를 쏟아내던 축제 같은 피로연 현장은 이제 기억마저 희미한 추억이 되어버렸다.

사람과 만남을 최소화하고 나다니는 일도 절제하라고 코로나는 수시로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비대면’이라는 낯선 이름이 생활 속에 들어와 익숙해지라고 요구하고 있다.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마음까지 멀어지는 고립감으로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감을 호소했고 나 역시 일자리를 잃고 심한 마음 앓이를 했다.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로 수년간 쉽 없이 일하던 나는 봄에 학교문이 닫히면서 설 곳이 없어졌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사업체와 일하던 남편마저 백수라는 이름표를 달았다. 한 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는 생계에 위협을 가하면서 몸과 마음에 고통을 안겨주었다. 아침마다 확진자 현황을 알리는 질병관리본부의 알람은 저승사자의 부름처럼

럼 컷가에 꽃혔다. 눈뜨고 시작되는 하루 일과는 아무 의미를 찾을 수 없었고 갈 곳 없어 묶인 발목에 드리워진 우울한 그림자만이 하루를 지켰다. 오후가 되면 학교로 나서던 버릇이 있어 적응하기 힘들었고 왓차 지겔 떠들며 말썽부리던 아이들의 모습이 눈앞에서 출렁거렸다. 하루해는 너무 길었고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정신 나간 사람처럼 서성였다. 가족과 친구들은 그동안 바빠서 미루어왔던 하고 싶은 일을 맘껏 하며 휴식 시간을 가지라고 위로했지만 사실 아무 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코로나는 떠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방역수칙을 지키며 일상생활로 돌아갔다. 그러나 나는 시간제 일자리도 불안하여 함부로 나서지 못하고 마음만 더욱 움츠러들었다. 그동안 친구들을 만나 맛난 음식을 먹고 차를 마시며 속내를 털어 놓던 일, 봉사하며 종교활동 하던 일, 지인들과 함께하던 취미생활, 도서관에서 마음껏 책을 빌려보던 일, 대형마트에 가서 식료품을 한가득 담아오던 일 등 예사로운 일상은 내게서 멀어져 갔다. 마스크로 얼굴을 감싸고 종종걸음으로 동네 작은 슈퍼에 들어서 최소한의 생필품 구입으로 근근이 이어가는 생활이 계속됐다.

코로나에 휩싸여 단조로운 일상이 반복되는 날들 속에서 시간은 야속하게 재빨리 흘러갔다. 흐드러지게 핀 벚꽃을 만끽하지도 못한 채 봄이 지나갔고 눈물과 섞인 빗줄기가 지루하게 내리치던 여름도 과거 속에 숨어 버렸다. 어느덧 살갓에 스치는 바람이 내 몸속 세포를 깨우며 청명한 가을을 데리고 성큼 들어왔다. 성급한 계절이 나 몰래 내뺄까

조급한 마음에 날마다 수봉산에 올라가 자연이 익어가는 모습을 눈에 담았다. 언제나처럼 나를 반기는 나뭇잎들은 저마다 고운 색동옷을 갈아 입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내 인생의 시계가 잠시 멈추어 수렁 속에서 헤맬 때 기특한 나무들은 말없이 아픔을 삼키며 환생을 준비하고 있었다. 풀빛 잎, 노랑 잎, 주홍 잎, 갈색 잎, 핏빛을 닮은 빨강 잎까지 서로 다독이며 동행을 약속하고 있었다. 물감을 풀어놓은 듯 화려한 잎을 달고 뿔내던 나무에만 눈길을 준 일이 미안해지며 바람과 힘겹게 줄다리기하는 낙엽에 마음이 멎었다. 제 몫을 다하고 떠나는 가랑잎조차도 소중한 생명이었음을 그동안 잊고 살았다. 그래서 차별하지 말고 서로 공존하며 살아가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코로나가 대신 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앞만 보고 달리는 무지함에서 벗어나 멈추어 서서 이웃을 돌아보고 주변을 살피라는 참회의 기회를 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모두가 비대면이라며 거부할 때 나무는 묵묵히 우리를 끌어 안아주었다. 날마다 날마다 만나러 가도 거부하지 않고 자신이 뿔어내는 피톤치드를 아낌없이 나누어주었다. 아름드리나무 가득한 길목에서 남몰래 마스크를 살짝 내려도 괜찮다 토닥이며 맑은 숨을 내어주었다. 이제 우리 차례다. 치명적인 겁을 주며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는 코로나의 이야기를 이제는 우리가 들어주어야 한다. 나를 위한 일이 곧 너를 위한 배려임을 우리는 마스크를 쓰면서 알았다. 나의 무심한 작은 일탈이 너에게 우리에게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안겨준다는 것도 경험했다. 밖으로 휘둘리며 자리 잡지 못한 마음을 이제는 내 안에 차분히 들여놓을 때다.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이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인지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볼 일이다.

비대면이라는 일은 이제 흔한 우리의 일상이 되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내게도 두려움을 걷어내고 희망 신호를 주는 세 번째 외출이 찾아왔다. 내년에도 코로나 종식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비대면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남부교육지원청에서 방과후 강사들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활용 연수’를 마련한 것이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낯선 일에도 도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망설임 끝에 용기를 내어 연수에 참석했다. 처음 만나는 전문적인 컴퓨터 용어와 익숙하지 않은 말들이 섞인 강의를 소화하기 어려웠지만 꼼꼼히 공책에 적어가며 귀에 담았다. 마스크 안에 숨겨진 얼굴 표정을 읽을 수 없는 답답함 속에서도 한 공간에 앉아 사람들과 무언의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다.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것 또한 달라진 세상에 새로 태어나는 진통이라 생각했다. 아마도 코로나가 출현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지나쳤을 미지의 세계다.

코로나 때문에 상처받고 마음 아픈 일도 많았으며 괴로움도 컸다. 하지만 코로나 덕분에 내 삶에 새로운 방식이 들어왔고 의욕의 불씨가 살아났다. 사람들과 부대끼는 불편함이 덜어지고 보여지는 바깥세상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다. 나만 잘살면 되는 세상이 아니라 너와 함께 잘사는 세상이어야 하며 너의 안전이 곧 나의 안전이라는 평범한 진리도 깨달았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사람만을 위해 못 생명과 자연을 훼손한 댓가는 반드시 최악으로 되돌려 받는다는 것도 알았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는 너도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너와 나는

하나이며 공생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 고속열차의 속도만큼 잦은 외출과 바쁜 일상은 사라졌지만 비둘기호를 타고 가며 멋진 풍경을 감상하던 옛 추억을 떠올리면서 천천히 새로 만나는 세계로 걸어가야겠다.

코로나를 원망하고 코로나 전파자들을 미워하며 세상을 한탄하던 어리석은 시간은 지나갔다. 이제는 코로나가 전하려는 말을 충분히 알아듣고 실천하며 순응해 가야 할 때다. 나의 편리함보다는 앞날 환경을 생각하며 자동차를 세워두는 일도 많아졌다. 걸으니 건강에도 도움 되고 동네 구석구석 아기자기한 재미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어 좋다. 절제된 만남으로 나를 돌아보고 가꾸는 시간도 많아졌다. 코로나가 내어준 세 번째 외출이 먼 훗날 내 생애 또 다른 추억으로 기억될 것을 믿으며 오늘도 나는 컴퓨터와 씨름 중이다.



일반부 동상

바닥을 치고서야 발견한 또 다른 세상

김성령

가톨릭대학교 휴학생

“제주 유기농 말차 프라프치노, 자바 칩 프라프치노, 세븐 레이어 가나슈 케이크, 진한 녹차 케이크 주문하신 게 맞으실까요?”

카페 직원이 나에게 물었다.

“네? 뭐라고요?”

“주문하신 게 제주 유기농 말차 프라프치노, 자바 칩 프라프치노, 세븐 레이어 가나슈 케이크, 진한 녹차 케이크 맞나요?”

어수룩한 내 표정을 보며 직원은 잠시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큰 소리로 되물었다.

“...아, 맞아요.”

“결제는 어떤 식으로 도와드릴까요? 쿠폰이나 포인트 적립은 따로 안 하시나요?”

“네? 죄송해요. 잘 안 들려요.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이후로도 주차권, 할인 혜택, 프로모션 이벤트 등 여러 번의 질문을 오간 뒤에야 나는 겨우 주문을 끝마칠 수 있었다.

며칠 전, 엄마와 함께 동네 산책을 나선 후 오랜만에 도란도란 담소를 나누기 위해 카페를 찾은 일이었다. 평소와 같이 메뉴를 주문하기 위해 계산대에 나섰지만 나는 전보다 더 주문하는 데 애를 먹었다. 청각장애인이긴 하지만 구화를 주로 사용하는 나로서 예전 상황이었다면 나름 막힘없이 주문했지만, 지금은 계산대에 서는 자체만으로 두렵다. 어머니는 아직 신문물이 어려우시기에 식당에 가면 주문은 늘 내 몫으로 당연했지만, 마스크 한 장이 나에게 언어의 장벽으로 다가올지 재난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다. 마스크 착용이 일상이 되어버린 현 코로나 사태에서 청각장애인에게 ‘세상과의 소통’이 단절되었다. 대개 청각장애인들은 의사소통을 위해 수화나 구화(입술을 읽는 방법) 등을 사용하는 데 마스크 착용이 일상이 되어버리면서 사소한 일상마저 쉽게 누릴 수 없게 되었다. 당장 구화를 사용하던 나조차 간단한 주문 과정임에도 버거워하며, 상대방의 말을 듣지 못해 실수하지 않을까를 걱정해야 했다. 반대로 온 신경을 청각에 집중했지만 내가 주문한 음식이 아닌 것이 나왔을 경우 내 잘못이라고 스스로 자책하며 군말 없이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주변 사람에게 코로나 상황이 이제 당연한 일상이라며 평범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나는 시간이 갈수록 스스로 자신을 육아하고 있었다.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뼈아프게 다가온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농인의 고충을 두고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데 어떻게 소수의 사람까지 신경 쓰냐’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재난 이전부터 농인들의 고충은 함께였고, 재난이라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늘 어려움이 있던 사람들의 어려움이 더 도드라지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코로나19로 사회의 양극화를 쉽게 만날 수 있었다. 질병으로 인해 휴학 중인 나는 현재 다음 해 복학을 목표로 전공 공부나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다. 학원을 가고자 했지만, 금전적인 여유가 되지 않았고 코로나 사태가 도무지 진정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괜히 매일 공부하러 다니다가 혹시나 감염되어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까 하여 온라인 강의를 선

택하였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나에게겐 얼마나 큰 불편을 초래하는지 온라인 강의를 듣기 전까지 미처 몰랐다.

온라인 강의는 오프라인 강의와 달리 속기사와 같은 학습 도우미가 따로 없고 음성 인식으로 이뤄지는 자막 변환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전공 용어 등을 엉뚱하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아 강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게다가 자막을 지원하는 콘텐츠도 찾아보기 힘들지만 ‘수어’가 들어간 콘텐츠는 이보다 찾아보기가 더 힘들었다. 수어를 쓰는 학생들에게엔 수어 없는 자막 영상이란, 수어랑 한국어가 전혀 다른 문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이해력을 떠나 동시에 영상 자막을 외국어 해석하듯이 읽어야 하고 동시에 해당 과목 공부를 해야 하니 어려움이 크다. 나는 고교 입학을 시발점으로 급격하게 나빠진 청력 때문에 조금씩 수어도 학습하면서 학업을 병행해왔다. 하지만 온라인 강의는 지금껏 학업에 집중하기 위해 쌓아온 요령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교육 환경과 우수한 연구 실적을 자랑하지만 정작 소수의 장애인 교육 인프라는 지금에서야 만들고 있었다. 나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과거처럼 악착같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내 어떻게든 학업에 임했을 것이다. 하지만 속기사 부재, 제한된 자막 영상 등 재난 속 장애인의 교육 환경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습하는 것은 나에게 1 대 1000 가까이 압도적인 수를 자랑하는 상대 앞에서 장비나 말, 지원군 없이 맨몸으로 그들의 공격을 받아내 싸워보라는 소리와 마찬가지로였다. 이 현실이 장애인인 내가 앞

으로 꾸준히 만나게 될 사회의 벽이라는 것이 답답했지만 개선의 목소리를 내더라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에 이내 나는 불공정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다시 학업에 집중해야 했다. 반대로 내가 오프라인 대면 강의를 신청했다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강사의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투명 마스크가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일반 마스크보다 가격이 비싸고 강사와 전체 수강 인원이 착용해야 효과를 보기에 현실적으로 실행되기까지 오랜 시간과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수어 통역사가 매우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장에서 통역해야 할 강의는 많은데 인원이 부족하다면 수강 인원이 매우 적게 제한될 것이고 설사 수업을 듣는다 해도 강사의 말 중심으로 통역하게 된다. 이 경우 촉박한 시간 싸움 속 빠르게 이뤄지는 실습 시간에 따라가지 못할 때 질문하기가 어렵고, 조별과제 등 소규모 활동은 통역 없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므로 불편함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코로나 사태 속 내가 바라본 청각장애인의 교육권은 위협받고 있었다.

최근에는 우리 주변에서 사회적 약자의 현실을 만날 수 있었다. 바로 '라면형제'다. 이 사건은 엄마가 집을 비운 상황에서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끓이려다가 불을 내 온몸에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다. 이후, 형제는 화상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현장에서 연기를 გადა 흡입한 동생이 끝내 숨졌다. 편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 등 부모가 생계유지를 위해 일을 하느라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취약

계층은 아이 돌봄을 학교나 지역아동센터에 의존하곤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기관들이 장기간 문을 닫으면서 아이들끼리 집에 머물러야 하는 일상이 반복되면서 방치 논란이 불거졌고 '최후의 보루'인 학교조차 문을 닫으면서 제도권에서 돌봄 사각지대를 놓쳐버린 사회적 참사가 일어났다. 세간의 관심을 끈 '라면 형제의 비극'은 실상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한 돌봄 공백의 한 모습이었다. 코로나와 함께하는 거리두기 명절을 앞두고 내가 사는 미추홀구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기에 그 어떤 사건들보다 나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자기 일인 것처럼 가슴 아파하면서 병상에 있는 형제가 하루빨리 일어나 학교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에도 동참했지만 결국 한 아이는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 위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을 펼쳐온 것은 사실이다. 긴급재난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전례 없는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하였다. 그 결과 국제 사회에서 긍정적인 제도상 평가를 받으면서 세계적으로 불평등 해소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기의 시기에 정부지원금과 같이 일시적인 지원만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바꿀 수 없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 대폭 늘어난 고독사, 소득 격차로 인한 돌봄 격차와 교육 격차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고통은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매우 유동적인 상황에서 누구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정부는 여러 사회안전망을 시급히 확충할 뿐만 아니라 사회가 놓친 빈틈을 조금이나마 메울 수 있도록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이웃 일이 남 일 같지 않다.’는 정서를 가지고 3차례에 걸쳐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다고 신고했지만, 법과 대책을 집행하는 시스템의 허점과 한 가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기 할 일만 하고 손을 뉘버린 기관의 안일함으로 인해 발생한 ‘라면 형제의 비극’이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정책을 쏟아내지 말고, 각각의 정책이 개인권 침해 없이 현실에서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첫걸음이다. 반대로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며 지금처럼 코로나 속 방역 수칙을 성실히 지키고 주변 이웃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코로나19로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위축됐지만, 이웃들을 생각하는 온정이 식어서는 안 된다. 일상 생활이 불편하고 답답한 것은 사실이지만 마스크는 나와 가족, 우리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약속이기에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금처럼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낮고 약하고 힘든 곳에서 종교는 힘든 이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어야 한다. 종교는 사회와 소통하며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위치에 서 있기에 어떤 분야보다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하고 신앙의 자유를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에 일부 교회처럼 종교의 이름으로 방역지침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협동해야 하는 위기의 상황임을 인지하고 재난에 지친

사람들의 영적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맞게 종교활동을 펼쳐야 한다. 또 우리의 언론은 동시대인과 공감할 수 있는 뉴스, 가치 있는 뉴스, 투명한 뉴스를 생산하는 건강한 언론으로 성장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언론은 약자에 관한 뉴스가 자극적일수록 관심을 둔다. 코로나 19로 요양원이나 격리시설 면회가 엄격히 금지됨에도 요양원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질문조차 하지 않고 단순히 코로나로 인한 요양원 격리시설의 현실 등 약자와 재난이라는 소재를 이용해 만든 감성팔이 뉴스에만 집중한다. 반복되는 요양원 집단 감염에 있어 어떻게 대응하고 개선하려는지 국민은 알아야 할 권리가 충분히 있음에도 언론은 늘 프레임 안에서만 움직인다. 언론은 늘 신속하고 정확해야 하며 투명해야 한다. 그리고 현상에 가려진 진실을 보기 위해 질문하고 또 질문해야 한다. 국민 곁에 이러한 언론이 존재해야지 만이 예측할 수 없어 더 힘든 코로나 시대를 버텨낼 수 있다.

2020년 현재, 코로나19는 소득의 불평등, 소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평등, 직업과 주거에 대한 차이, 나아가 문화와 언어의 장벽이 모두 재난과 함께 살아야 하는 우리 시대의 큰 숙제가 될 것이란 뼈아픈 비판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나와 우리 공동체 모두를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일상화를 꾸준히 진행하면서 ‘모범국가’라는 국민의 참여를 통한 성취를 얻게 되었다. 또 방역을 위한 의료진의 헌신과 전문성, 신뢰의 상징인 질병관리본부의 노고로 우리는 재난에도 극복하며 깨끗하게

살아올 수 있게 되었다. 나 또한 카페에서 차 한 잔 마시기 위해 잠깐 마스크를 벗는 순간, 마스크를 벗은 상대방의 입 모양을 어찌다 보는 그 순간, 소중한 일상이 엄청난 행복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그래서 보이지 않은 곳에서 노력하는 영웅들의 노고를 생각하며 우리 사회가 하루빨리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인과의 약속도 거의 잡지 않고 외출도 최대한 자제한다. 어찌다 한 번 외출할 때에는 마스크 착용을 성실히 하고 수시로 손발을 씻는다. 그러나 아직도 재난문자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울어대고 있다. 그렇기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수시로 뉴스를 확인하며 변경된 사항대로 지금처럼 방역 수칙을 성실히 지키려 한다. 나와 같은 작은 실천들이 쌓이고 쌓여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과 함께 우리 사회가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청소년부 당선작

코로나와 나의 일상



청소년부 대상

나의 완벽한 계획

송 아 현

인회여자중학교 2학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생활의 스며든지 벌써 10개월 남짓의 시간이 흘렀다. 작년에는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1년 비슷한 시간을 땅바닥에 내다버릴 것이라고 상상은 했을까? 코로나 바이러스 한국 확진자가 처음 나왔을 무렵에 난 금방 상황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원래대로 되돌아올 줄 알았다. 사스 때도 그렇고 잘 이겨냈었던 전적이 있었기에 말이다. 하지만 금방 끝난다는 건 정말 어렵도 없는 소리였다. 그 많은 마스크가 동나기 시작했고, 개학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었던 나는 8월까지 등교를 못했다. 집 밖에 못 나가고 집에만 꼭 박혀있을 땐 소소함이 주는 행복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생활 속의 익숙함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정말 탈도 많았고 눈물도 많았고 웃음도 많았던 꽃 같았던 내 중학교 1학년 생활이 막을 내린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난 2학년 생활을 어떻게 하면 끝내주게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걸 온갖 방법을 통해 연구 중이었다. 2학년이 되고 나서 4월 달쯤에 가는 1박 2일 수련회를 겨울방학 때 생각 중이었으니까 말 다 했다. 그 밖에도 공부는 어떤 식으로 해야 전교권에서 놀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좋아하는 아이돌 콘서트에서 신나게 응원하고 있는 상상, 2학년 때 친해진 아이들이랑 롯데월드나 에버랜드와 같은 놀이공원에서 신나게 노는 계획 등등... 작년이었다면 충분히 가능했을 법한 흔한 계획이지만 올해는 터무니없는 계획이 되어 버렸다. 해외여행은 바라지도 않았다. 모든 버킷리스트 계획을 실행조차 하지 못했다. 매주 친구들과 놀러 갔었던 부평도 못 나가게 되자 드

라마 속 비련의 여주인공에 빙의된 것처럼 절망에 휩싸여버렸다. 안 그래도 중2, 흔히들 말하는 중2 병이 올 시기인데 말이다. 코로나 블루 현상처럼 상실감에 우울하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심각했던 건 금세 나태해져서 몇 개월을 우왕좌왕하며 휘리릭 날려버린 거다. 밖에서 운동도 잘 안 하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등교도 안 하고 온라인 수업만 계속 하니깐 누워서 출석체크하며 먹고 자고 해서 살은 당연지사 기하급수적으로 썩어버렸다. 지금처럼 정신 차리고 전처럼 사람답게 살게 된 것도 몇 달 안 되었다. 그 전까진 완전 폐인 그 자체였다.

폐인 같이 살았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아마 8월 달 중반쯤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계속 이런 식으로 대충대충 살다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만화영화에 나오는 치히로의 엄마아빠처럼 돼지가 되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 아무래도 그 영화를 본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엄마아빠가 행사 음식을 마구 먹다가 1초도 안 되어 돼지로 변해버리는데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다. 하여튼 그래서 침대에서 일어났고, 먹던 음식을 내려놓았다. 코로나 그 자식이 뭐라고 내 소중한 인생의 1년을 손해보고 싶지 않았다. 헬스장 사장님께 죄송한 말이지만 의료진분들께서 고생고생하시면서 열심히 방역 중이신데, 사람 많고 불안한 헬스장 같은 곳은 가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흔히 ‘홈트’라고 불리는, 집에서 동영상 보면서 언제든지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운동부터 차근차근 시작했다. ‘몸무게에 심각한 변화!’, ‘하자마자 오는 효

과!’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살이 더 찌는 걸 막고 몸무게 유지 정도는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살이 빠지는 효과보다 더 좋았던 건, 무엇보다도, 하나라도 노력하고 있다는 심리 덕분에 마음에 평화도 찾아오고 조금했던 마음도 전보다 차분히 가라앉게 되었다는 거다. 작년에도 안 했고 재작년에도 안 했던 명상도 해봤고, 평소에 수행평가 준비하랴 공부하랴 바빠서 못 읽었던 책들도 한번에 다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아마 14년 인생 중 이렇게 책을 많이 읽었던 건, 내 기억으로, 7살 때 유치원 안에 있는 위인 집을 다 읽었던 거 말고는 없다. 비록 고등학생, 대학생 필독 도서와 같은 과학과 역사를 담은 그런 수준 높은 비문학 책은 아니지만, 재밌는 소설책 웬만한 건 거의 다 읽은 것 같다. 도서관증을 발급 받고 나서 책을 이렇게 많이 빌렸던 적도 처음이었다. 누가 나보고 어떤 방식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있냐고 물어본다면, 아마 난 전보다 더 나아진 내 지식수준과 작년에 나보다 지금이 심적으로 더 차분해져 있다는 것을 들먹이며 복수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내놓을 것이다. 확실히 작년만큼 활동적인 걸 못 하는 건 맞지만, 2배속 한 것처럼 바빴던 일상이 0.7배속 한 것처럼 천천히 돌아가면서 난 나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독해력을 얻었고, 인생책을 만났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가 되든 이 커다란 실수를 각자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수를 한 시간을 미래에서 복구할 수 있을 뿐, 결코 되돌릴 수는 없다. 시간은 앞으로도 지금도 우릴 기다려주지 않은 채 자기 할 일을 다 하며 살아갈 것이다. 우리가 시간의 속도에 맞춰 살아야 한다. 코로나가 인생을 망쳤다면 절망에 빠진 채 과거에만 머문다면 그건 아주 어리석은 짓이다. 시간도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사는데 우리가 못할 것 없다. 무너지면 다시 세우면 되는 것이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면 된다. 나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세상의 완벽한 계획은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계획은 고치라고 있는 것이고, 인생은 변수의 연속이니까 누가 세웠든 간에 완벽한 계획은 존재하지 못한다. 앞으로 난 부족한 내 계획으로 나만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이다. 아침에는 꼭 빵을 먹고 등교를 할 것이고, 추천 받은 추리 소설을 올해 안으로 다 읽어볼 것이며, 지금 나의 생활에 만족하며 살 것이다.

지금 여기까지 내가 이런 식으로 2020년을 살고 있다는 걸 나만의 방식으로 한 번 알려 보았다. 다들 코로나 바이러스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고,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모두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의료진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하며 이상으로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한 내 이야기를 끝마치도록 하겠다.





청소년부 은상

나의 감정들

김 지 원

학익여자고등학교 1학년

2020년 4월 1×일

코로나로 인해 연기 되었던 학교수업 첫시간이었다. 처음부터 온라인이라니 난 좋았다. 워낙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친구도 잘 사귀지 못하는 아이니까. 학교가서 어색하게 지내는 것보단 나았다. 거기다가 언제 들어도 상관없는 녹화본 수업. 이보다 좋은 생활이 어딴을까. 그저 텅 굴거리며 하루를 지내다가 내가 원하는 때에 수업을 듣고, 출석체크를 하고. 편했다. 유일하게 몇 없는 친구도 시간될 때 만나서 놀다가 오후에 수업을 듣고는 했다. 좋았다. 그냥 이 생활이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학교에 가기 전날이 되었다. 아 지옥이다 가기 싫어라는 생각만 들며 다음날이 되어 학교에 갔다. 이미 여럿 친해진 친구들 사이에서 나는 유명이었다. 좋았다. 난 자발적 아싸였으니까. 같은 반이 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쉬는 시간, 점심시간만 되면 같이 놀던 친구들이랑 놀았다. 같이 놀던 한 친구 덕분에 친구를 조금 더 여럿 사귀었다. 내 범주 안의 사람들. 은근 기분 좋네 이거

내가 좋아하는 것도 조금 더 할 수 있었다. 책을 읽고 소설을 읽고 웹소설을 읽고, 평소 보고 싶었던 웹소설도 보면서 나름의 행복감을 채워가는 중이었다. 그리고 내 취미를 여전히 해나가며 내가 좋아하는 걸 했다. 내 취미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많지만 난 괜찮았다. 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할 이유따윈 없다는 생각이었으니까 태연했던 것 같다. 그래서 떳떳했다. 여전히 그렇고. 친구들도 계속 만나고 말이다. 만나면 '안녕' 이라고 안부 인사를 건네는 친구는 두 명에서 어느새 3명, 4

명, 5명...하나씩 늘어가기 시작했다. 아, 저 친구들도 나와 안부인사 해주는, 나를 생각해주는 아이들구나. 그 아이들과는 급속도로 친해졌다. 물론 친화력이 좋았던 친구 덕분이지만.

친화력은 제로다. 정말 없다. 무언가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친구가 없다면 그 아이들과는 절대로 친해지지 못했겠지.

그래서 더 고맙게 생각한다. 정말 내 친구. 기분 좋아

물론 나에게 악영향을 끼칠 때도 있었다. 난 어두운 걸 정말 좋아한다. 밝은 건 싫으니까. 눈 아프다. 방에는 암막커튼을 항상 치고 지내는 중이고, 문도 꼭꼭 닫아서 빛은 허용하지 않는 방이다. 안락했다. 아무 것도 보이질 않아서. 나에게 쏟아지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안락함과 동시에 편안했다.

하지만 내 우울감을 극대화시키기엔 충분한 조건이었고 하루하루 우울했다. 가뜩이나 말수도 없는데 더 없어지고, 표정도 잘 웃었지만 이젠 무표정이 대부분이다. 무표정이 무서워 보인대서 웃으려고 노력은 한다.(내가 봐도 무섭다.) 이렇게 우울감에 빠질 때면 항상 좋아하는 피아노곡을 틀었다. 그러면 좀 나아졌다. 우울했던 게 사라지고 텅비었으니까. 우울보단 공허가 좋았다. 다들 비슷하지 않을까. 내 생활은 똑같았지만 조금씩은 달라졌다. 친구가 여럿 생겼다는 게 제일 달라졌던 것 같다. 나도 내가 어떻게 그 친구들과 사졌는지 모르겠다. 아마 내

인생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겠지. 심지어 전화번호까지 교환했다. 진짜 내 인생 미스터리 중 하나일꺼야. 학교를 간다는 건 여전히 싫지만 친구들을 만난다는 건 기분이 좋아진다. 아 학교가 아닌 다른 곳이라면 더 좋을텐데.. 그래도 그것에 위안받으니까 괜찮다.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난 지금이 제일 좋은 거 같다. 지금 생활은 충분히 만족 중이다. 학교가 짜증난다는 것만 제외하면 말이다. 생각하니까 다시 짜증이 치고 올라온다. 그만 생각하는 게 좋겠어.

며칠 전엔 생일이었다. 그 전날 제사여서 오랜만에 큰외삼촌댁에 들렀다. 다들 내가 기억하던 그 모습 그대로. 그 성격 그대로. 그 목소리 그대로. 거부감은 없었다. 가족이라 그런거같다.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라고 크게 인사했다. 오랜만에 만나도 “어서와!” 라며 반겨주는 가족들은 기억 속 그대로였다. 열심히 부치는 전을 빼먹고, 장난도 치고, 많이 웃었다. 정말 많이 웃었다. 아마 올해들어 제일 크게 웃은 거 같다. 오랜만에 사촌들도 보고 말이다. 작은 외삼촌은 여전히 장난을 잘 치시는 분이였다. 바뀐 것 따윈 원래부터 없었던 것처럼 말이다. 만났으니 앞으로는 문자도 자주 넣고... 전화도 자주 하고... 그래야겠다. 좋아해주시겠지?

여전히 나는 외로움에 익숙해져 있는 거 같다. 내가 생각해도 나는 여전히 사람을 잘 대하지 못하는 거 같고, 사람들이 나를 대하기 어렵게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안부인사를 전하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쌓아온 내 인간관계들까지 무너트릴 정도의 멍청이는 아니다. 외로움에 익숙하다 해도 내가 쌓아온 것들은 '내'가 그만큼 변했다는 증거이니까. 앞으로도 만나면 누구를 만나던, 내가 가장 아끼는 친구들을 만나던, 가족을 만나던, 날 챙겨주는 누군가를 만나면 인사부터. 잘 지냈냐는 인사를, 잘 있었냐는 인사를, 그냥 소소한 일상을 말하는 인사를 해야지. 응 그래야지.

쓰다보니 여전히 헛소리 같다. 그냥 꿈인거 같다. 하지만 나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내가 기억했고, 내가 기록한 글이다. 누가 헛소리라 해도 내가 쓴 글, 내가 기억하는 모든 것이고, 내 의지의 글이니까. 솔직히 두렵다. 내 기억, 감정, 기록을 읽는 거라 생각하니 내 속마음이 들키는 기분이다. 동시에 후련하다. 내가 그동안 분출하지 못했던 쌓아온 모든 것들을 적을 수 있다는 것. 이제야 모든 걸 후련하게 털어낼 수 있다는 감정이 새롭다. 아직은 적은, 17년의 삶이지만 그 삶의 조금이라도 괜찮은 기억이 있다는 게 다행이다. 하나라도 없으면 억울할 테니까. 왜 없냐고 미래의 내가 따져도 할 말 없을 거 같을 뿐이다. 생각해 보니까 진짜 없었으면 억울할 뻔했다. 기껏 친구 사겼더니 그게 기쁘지 않은 기억이라니 지금의 내가 봐도 미친년이 될 뻔했네.

근데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집순이인 나는 편하다. 역시 집이 최고야. 솔직히 답답하다는 사람들도 많다.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난 역시 편하게 좋다. 아직은 이로운 점이 많다.. 인 것 같

다. 하나의 마음만 꼽으라면 꼽을 수 없다. 다시 예전처럼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과 조금만 더 이런 편안한 생활이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래도 안부인사는 전하게 해주었음 좋겠다.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서... 아직은 많아서... 그래서 못 놓아서... 조금만 더 이 생활이 지속되더라도 인사는 해주게 해줬음 좋겠다. 달에게 소원이라도 빌어볼까. 진심 가득 담아서.



청소년부 은상

여기 지금, 우리

최혜빈

인화여자중학교 2학년

내가 생각했던 2020년은 이런 게 아니었다. 적어도 지금 하늘에 UFO 하나는 떠다닐 줄 알았다. 그니까 나는 이렇게 역병이 돌고 트로트가 유행하고 집에서 커피나 5000번 짓고 있을 줄은 몰랐다는 말이다. 코로나로 인해 내 삶은 많이 변화 되었다. 친구들과 자주 가던 노래방도 PC방도 모두 못 가게 되었다. 끝이 있을 것 같던 내 시험 점수도 더 더욱 나락으로 떨어졌다.

처음 접하게 된 온라인 수업은 어색하고 불편했다. 처음 본 선생님들과 인사도 나누지 않고 바로 수업에 들어가는 것은 내성적인 나에게 정말 곤욕이었다. 한동안 4월까지의 행복했다. 코로나의 최대 수혜자는 학생이 되는 건가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웃었다. 그러나 4월 중반이 지나가던 즈음 온라인 수업을 시작했는데 진짜 너무 별로였다. 결국 내가 온라인 수업을 통해 얻은 것은 ‘어떻게 하면 수업을 더 빨리 들을 수 있는가’ 와 ‘인강 선생님의 성대모사’ 밖에 없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갔고 시간은 벌써 상반기를 지나고 하반기를 달려가고 있었다. 나는 다가올 시험도 생각 못 하고 하하 호호 놀며 지냈고 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올 때까지 정말 나는 무방비한 상태였다.

무(無)인 상태에서의 공부는 쉬운 게 아니었다. 그간 내가 빨리 들은 수업을 따라 잡기 위해 평소 안 하던 공부를 열심히 해보았다. 결과

는 능지처참. 말 그대로 그냥 말아 먹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시험을 보지 않았어서 2학년이 되면 어떻게 하지에 대한 걱정이 엄청 많았는데 코로나로 인해 그 걱정이 배가 되었다. 처음 맞이하는 시험에 나는 마치 무기를 갖추지 않고 전장에 뛰어드는 용사나 마찬가지였다. 갖추지 못해 힘들었고 힘든 만큼 결과는 처참했다. 시험 전까지만 해도 나는 '아 그래도 100등 안에 들겠지'라는 생각이었는데 시험을 보고 나서는 '아 제발 100등 안에만 들자'라는 생각 밖에 없었다. 역시 온라인 수업은 나랑 안 맞다.

나는 평소 좀비물을 굉장히 못 보는 편이다. 그래서 내가 좀비영화를 봤다면 그 날 밤을 좀비 바이러스 생각으로 잠을 잘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종종 만약 좀비 바이러스가 전염된다면 어찌 될지 생각하곤 한다. 근데 코로나19가 좀비 바이러스랑 정말 비슷한 것 같다. 집에서 나가지도 못 하고 자유롭지 못한 생활. 내 생각에서 좀비 바이러스는 정말 무서웠는데 막상 비슷한 일을 지금 내가 겪고 있으니 뭐 별 일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독감으로 고생하던 우리들도 결국 이겨내고 백신을 만들었으니까 충분히 코로나도 이겨낼 수 있을거라 믿어 의심치 않다. 생각하면 할수록 코로나는 단점 밖에 없는데 막상 알고 보면 장점도 있는 것 같다. 코로나로 인해 사람이 돌아다니지 않으니 자연이 깨끗해졌고 비대면으로 하는 수업이 많아져 핸드폰이나 영상통화 앱들도 많이 개발되었다.

만약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 대학생활은 어떻게 되고 내 수험생 시절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데도 나는 친구는 만나야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한다. 그 속에서도 나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아야 한다.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본다던지, 연예인을 보러 콘서트를 간다던지 비록 그런 많은 사람이 모여 할 수 있는 문화생활은 하지 못 하지만 집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나는 사실 집순이이다.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는 걸 더 좋아한다. 연예인을 보러 콘서트 가는 것도 좋아하지만 연예인 직캠 보면서 웃는게 더 좋다. 고로 나는 아주 쉽게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나는 집순이라서 쉽게 이 시국을 이겨낼 수 있지만 나와 다르게 밖에 나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다. 집에 있으면 몸이 근질거리고 친구들과 만나서 놀고 싶은 사람 뼈속까지 외향형인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이번 코로나19로 정말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한 두명이 아니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해결법을 찾아냈다.

해외여행을 못 가는 대신 그 나라의 풍경을 24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구경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만나서 밥을 먹는 대신 영상통화를 통해 원거리로 각자 먹는 것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짧은 비디오를 올리는 앱에는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달고나 커피

백번 저어 만드는 수플레 등이 인기를 끌었다. 또한 많은 영화들이 상영권이 아닌 넷플릭스에서 먼저 개봉하기도 하였다.

2020년은 정말 다사다난 했던 것 같다. 코로나도 있지만 다른 큰 일들도 정말 많았다. 내가 만약 커서 손주가 생긴다면 나는 이 할미 15살뎨 말이다~ 하며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다. 이렇게 나중에 보면 '아 이때는 이랬었지' 하며 지금을 추억 할 시간이 나중에 오지 않을까? 코로나가 없어지고 행복했던 원래의 일상들이 돌아 올 그 때까지 우리는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가야 한다. 결국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잘 헤낼 것을 알기에 오늘도 열심히 나는 나만의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간다. 나의 시간은 아직 여기, 흐르고 있으니까.





청소년부 동상

상처 많은 번데기

권 유 민

용현여자중학교 1학년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놀라고 무서워 집콕! 하고 있을 때
일상에 대한 그리움과 기다림에 지쳐 힘들어 하고 있을 때
봄은 꽃과 나비 장군을 앞세워, 가을은 파란 하늘과 알록달록 예쁜
단풍을 앞세워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와 위로와 응원의 선물을 주고
갔다.

“유민아~상처 많은 번데기가 살이 터져 허물을 벗고, 벗고, 또 벗어
더 예쁜 나비가 되어 드넓은 세상을 날 수 있게 되는 거란다.”

계절마다 바뀌는 꽃을 보며 아기같이 행복해 하는 우리 할머니께서
는 해 주신 말씀이다.

내가 언니랑 싸워서 화가 났을 때, 공부하기 싫어서 신경질이 가득
찼을 때, 엄마한테 혼나서 울고 있을 때 조용하게 다가와 할머니는 ‘상
처 받은 번데기’ 이야기를 하시며 늘 나를 달래 주신다.

그때부터 난 꽃밭에 날아다니는 나비를 볼 때마다 할머니가 이야기
해 주신 ‘번데기’를 떠올린다.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아
다니는 아름다운 나비는 상처 많은 번데기의 과정을 묵묵하게 잘 견디
고 그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봄을 빛내주는 대표 장군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상처 많은 번데기는 절대 초라한 게 아니다. 게다가 상처 많은 번데

기는 외롭지도 않다. 조금만 더 견디어 허물을 벗으면 날개를 활짝 펴고 노래하며 춤추는 예쁜 나비가 되어 행복을 전해주는 날개짓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아니, 전 세계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모두 멈춰 버렸다. 마치 움직이지 못하는 번데기처럼...

코로나19의 꿈쩍마! 주문으로 인해 학교도 매일 못가고, 교회도 못가고, 학원도 자유롭게 못가고, 생일날 좋아하는 뷔페에 가서 외식도 못하고, 친구랑 노래방 가서 유행하는 노래도 부르지 못하고, 놀이공원에 가서 바이킹도 못타고, 가족이랑 추억여행도 제대로 가지 못했다.

하지만 출구없는 미로는 없는 법이다.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것이 바뀌어 불안하고 불편하고 힘들지만 CHANGE에서 G를 C로 바꾼다면 변화를 찬스, 즉 CHANCE 기회로 만들어 더 감사하고 행복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

코로나19로 덕분에,

우리는 평범한 일상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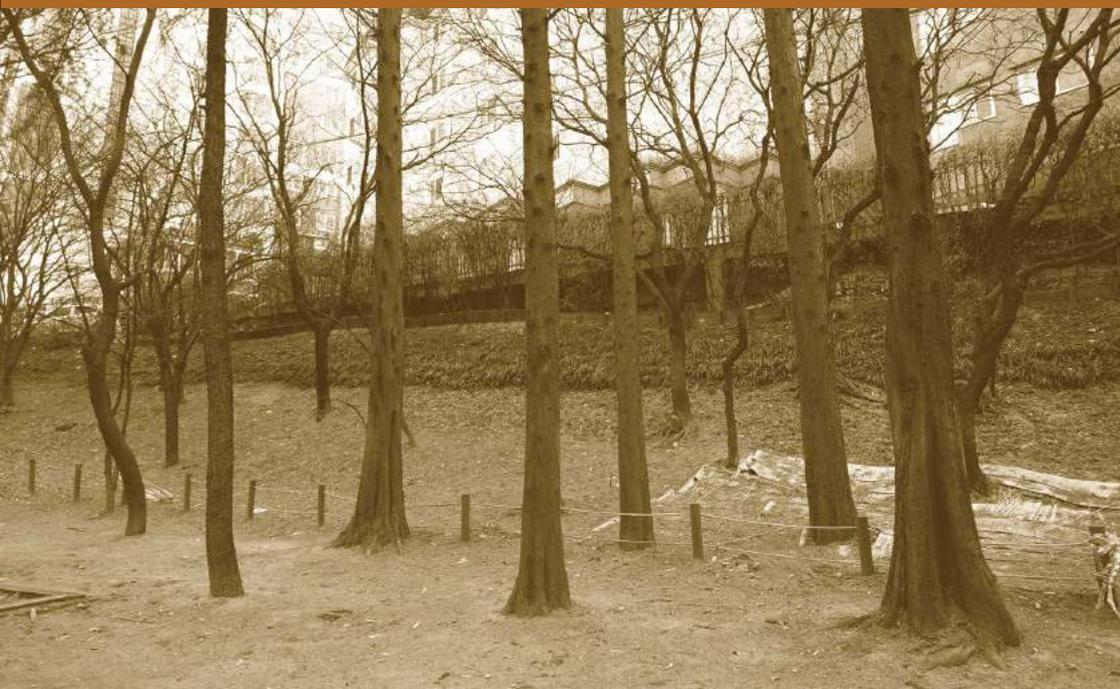
코로나19로 덕분에,
우리는 예전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코로나19로 덕분에,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났음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덕분에,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고, 주변을 배려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상처 많은 번데기~~~~
하지만 오늘도 허물을 벗을 수 있음이 감사하다.
나비가 되어~~분명 예쁜 날개로 예쁜 세상을 날아 오를 것이다.

“우리 모두 예쁜 나비가 되어 만나요~~”



청소년부 동상

코로나19와 함께 시작한 내 인생 첫 중학교 1학년

김서연

용현여자중학교 1학년

올해 초 여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돌아왔을 때 공항에 기자들이 몰려와 있었다. 나는 연예인이 온 줄 알고 신기해서 두리번거렸는데 기대했던 연예인은 보이지 않았다. 집에 와서 뉴스를 보니 중국에서 시작된 감염병의 영향으로 공항방역에 대해 취재하기 위해 공항에 기자들이 몰려왔던 것이었다. 이때만 해도 조금만 있으면 잠잠해질 거라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이때까지만 해도 코로나19가 이렇게 오래 지속될지는 상상도 못했다.

대략 한 달 뒤 나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다. 올해 나는 드디어 초딩을 졸업하고 중딩이 되는 아주 중요한 해이다. 코로나19로 졸업식도 교실에서 영상으로 진행했었고 새롭게 맞춘 교복을 옷장에 고이 모셔두기만하고 학교 갈 날을 기다렸다. ‘교복을 입고 중학교에 가는 기분은 어떨까?’ 설레며 기다렸는데 입학식도 개학도 연기되었고, ‘걸어진 개학 연기에 과연 언제 학교에 갈 수 있을까? 저 교복을 과연 입을 수 있을까?’ 생각하며 온라인 학습으로 중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결국 동복은 입지도 못했고, 하복을 맞추라는 안내를 받는 웃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지만 6월이 되어서 드디어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야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하니 외출을 하지 않고 집콕하는 시간이 많아져 핸드폰 사용시간이 늘어나게 되었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핸드폰과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함을 깨닫고 평

소 읽고 싶었던 책도 찾아서 보고 저녁마다 아빠와 홈트레이닝도 시작하였다. 아쉽게도 나는 살이 빠지진 않았지만, 아빠는 무려 5kg나 빼는 쾌거를 이루었다. 코로나19 전에는 퇴근이 늦는 날이 종종 있었던 부모님도 일찍 집에 오고 가족 모두가 집에 오손도손 모여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보드게임 같은 가족 게임을 하는 시간도 늘었다. 그러다가도 서로 부딪히거나 긴장이 높아지면 음악으로 감성 충전을 했다. 나는 피아노, 엄마와 동생은 오카리나 아빠는 트라이앵글이라고 들고 나와 합주도 하는 가족끼리 집안 버스킹도 하게 되었다. 코로나시대에 하고 싶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지만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평소 가족과 있었던 마음의 사회적 거리는 좁아지고 건강을 위한 사회적 거리를 잘 지킬 수 있었다.

그래도 인생에 한번 밖에 없는 중학교 1학년의 새로운 친구들 얼굴이 너무 궁금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새로 배정된 같은 반 친구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었지만 SNS로 만나거나 일주일에 한번 학교에 가서 조금은 어색하게 서로를 탐색하던 시간이 소중했다. 한번은 온라인 실시간 수업하다가 나도 모르게 실수로 하품을 해서 벌칙으로 문제를 풀었던 일도 있었다. 열심히 수업하는 선생님께는 죄송했지만, 역시 수업은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친구와 만나서 하는 수업이 역시 좋은 것 같다. 새로운 친구들과 자주 만날 수는 없었지만 서로 친해지고 싶다는 마음 하나만큼은 다들 같은 마음이었다. 개학이 미뤄진다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걱정되지는 않았다. 우리는 사회적

거리를 지키며 마음은 가깝게 다가가는 방법을 매일매일 배우고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전세계가 코로나19의 2차 유행으로 엄청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알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말 많은 분들의 수고로 코로나19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서 관리되고 있음을 매일 뉴스를 보며 느낀다. 우리가 다른 해보다 조금 늦게라도 입학식을 하고 학교를 갈 수 있게 된 것은 지난 뜨거웠던 여름에도 방호복 입고 환자를 위해 애쓰셨던 의료진과 확진자의 역학조사를 하고 동선마다 소독하고 각 공시설마다 매일매일 빈틈없이 일상소독을 꼼꼼히 해주신 보이지 않은 많은 분들의 수고의 열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답답하더라도 외출할 때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친구도 만나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지만 참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준 모든 국민들의 자발적인 성숙한 노력 덕분이다.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이 또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K방역처럼 팬데믹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노력이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코로나19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 힘과 마음을 모은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웠다. 나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코로나19가 끝날 때 까지 나의 역할을 다하리라고 다시 한 번 다짐해본다.



청소년부 동상

인생에도 봄은 옵니다

인 가 은

그레이스아카데미 3학년

매년 봄이 되고 가을이 되면, 가족들과 연인들이 손을 맞잡고 거리를 걷어가는 모습들은 지극히 평범한 일이었지만, 2020년의 봄과 가을에는 벚꽃이 만개해도, 붉고 노란 나뭇잎들이 우수수 떨어져도 우린 먼 발치에서만 바라봤고 우리가 걸어야 할 자리에는 폴리스라인, 즉 질서유지선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다. 나에게 코로나는 5년 전, 메르스와 비슷하게 잠깐 있다 지나갈 바이러스라고만 생각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는 경각심을 찾아볼 수 없었고, 대구 사람들과 신천지인들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나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벌써 9개월째 우리 삶에 자리를 잡아 나와 너무 가까워서 살아가고 있다. 모두가 비슷하겠지만 이렇게 나의 삶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코로나가 미운 감정이 들고 짜증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나의 바람은 단지 내 사람들과 눈을 맞추며 식사를 하고, 손을 맞잡고 산책을 하고, 따뜻한 미소로 대화를 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런데 코로나는 우리의 인생을 하루 아침에 무참히 짓밟아버리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만들고 모든 것을 앗아가 버렸다. 그렇지만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만은 아니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바라보니 작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먼저 나와 동행하며 매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은 결코 당연한 것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24시간을 함께 있기에 나는 그들의 소중함을 잊고 살았고, 그들은 나의 삶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항상 옆에 있던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한지 서너 달이 넘어가

자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단지 곁에만 있어 주어도 고마운 것임을 깨달았다. 그런데 나는 항상 더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바라고 있었다는 생각이 이제야 들었다. 너무 늦게 알게 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크다.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 뿐만 아니라 자연의 소중함 또한 크게 느껴졌다. 따사로운 햇빛이 비취지는 봄이면 벚꽃을 보러 나가는 것도, 가을이 되면 거리에서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도록 낙엽들을 밟는 것도 당연한 것들이 아니었다. 항상 제자리를 꽂꽂이 지키는 자연이었기에 나는 당연하게 느꼈던 것 같다. 그리고 나의 삶은 바이러스가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확진자만 늘어만 가는 상황으로 변하자 점차 난 지쳐갔다. 지친 생활 속에서 마음을 내려놓자 창문 너머에 있는 바람에 흔들리는 꽃과 나무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나의 지친 마음을 감싸 안아주고 녹여주는 꽃과 나무들은 나의 모든 짐들을 다 가져가 주었다. 그때 강하지는 않지만, 부드러운 자연의 힘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코로나로 인해 삶이 피폐해지고,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던,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던 이 고난의 시기를 “시간의 가치를 알기 위해 시작된 여정”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그 여정은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일깨워주기 위해 겪었던 너무나도 거대하고 세찬 태풍이었다고 생각하고, 정말 태풍처럼 다가왔다가 곧 지나갈 시기라고 생각하고 싶다. 나는 또한 코로나를 통해 ‘시간’에 대해서 마음가짐을 다시 바

로 잡을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코로나를 만나기 전, 나에게 '시간'이라는 건 내일 또다시 주어질 것이라고 여겨졌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된 분들과 확진을 판정받아 오늘내일 하시는 분들에게는 딱 한 시간만이라도 살아보고 싶었던 소중한 하루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옛날 말 그대로 시간이 금처럼 느껴진 그때부터는 시간은 나에게 나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하는 무기가 되었고, 조금은 과장해서 말하자면 큰돈을 벌어서 내로라하는 한 분야의 인사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되었다.

마지막으로는 생각해보지 않은 나의 보통의 일상에서 재미를 경험하고 또 다른 나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의도치 않은 칩거 생활로 집에서 꼭 박혀있던 오랜 시간 동안 비록 비행기 한 번 타지 못했고 여행한 번 갈 수 없었지만, 다양한 책을 읽고, 좋은 영화들도 많이 보고, 가족들끼리 더 많이 대화하며 서로를 알아갈 수 있었다. 책장 구석에 있던 먼지로 인해 더러워진 책들을 닦아내며 읽어보고 가족들과 이야기하고, 영화관에서는 할 수 없는 편한 자세와 이 사람이 나쁘다더니 저 사람이 별로다더니 가족들과 토론하며 영화를 관람하고, 습기가 가득한 마스크를 차고 집 앞 놀이터를 걸으며 엄마와 때로는 아빠와 단둘이 속마음을 이야기하며 우리는 서로를 더 알아갔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사색을 하고 내 안의 있는 나를 만나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보통의 일상에서 알지 못했던 평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마주했다.

하찮게만 느껴지던, 나의 모든 것들을 앗아갔다고 생각되던, 코로나 바이러스는 잃은 것보다 더 거대한 행복을 나에게 안겨주었다. 곧 고등학생이 될 나에게는 이 시기가 지금 찾아왔다는 것이 감사로 느껴진다.

코로나가 우리나라는 많이 잠잠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는 어려운 시기에 놓여있기에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고 앞으로의 상황은 짐작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방역 당국의 요청을 따라야 하겠지만, 마냥 집에서 보낼 시간들과 습기가 가득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겁갑하지만은 않다. 보통의 일상에서 많은 것들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은 많이 잠잠해졌지만, 코로나바이러스의 초반 단계와 겹쳤던, 열심히 자라나는 새싹들의 입학과 많은 사람들의 새로운 도전과 시작의 모습을 보게 되지 못한 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고, 나보다 어린 어린이집을 다니는 꼬꼬마 아이들이 마스크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도 좋지만 코로 숨 쉬며 느껴보는 것은 또 다를 텐데 말이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보다는 더 자란 우리가, 나와 같은 청소년들보다는 세상을 더 많이 마주했을 어른들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 같다. 미래의 다음 세대들은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아픔과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못하는 슬픔을 마주하지 않도록 말이다.

계절에서도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듯이 우리의 인생에서도 겨울은 지나고 아름다운 봄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찾아올 것이다.





청소년부 동상

변화된 평범한 일상

최지을

용현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평범하게 학교에 등교하고, 어른들은 평범하게 일터로 향하는, 평범하기 짝이 없었을 오늘날은 코로나19바이러스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180도 달라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필두로, 접촉으로 인한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가 어영부영 지나가더니 벌써 사태가 반년을 훌쩍 넘겼음에도 끝날 기미가 도통 보이지 않는다. 집단 감염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는 사태도 자주 일어났기에 나를 비롯한 학생들은 본래 등교해야 했을 3월에서 4달이 지난 6월이 돼서야 등교를 할 수 있었다. 친구들의 얼굴을 본 시간도 전무하여 애를 먹었으며 학기 시작 전 맞춰놓은 교복까지 사이즈가 안 맞는 등 황당한 일도 있었다. 또한, 소중한 가족까지 만나기 조심스러웠던 터라, 직접 비어 인사를 자주 드리지 못한 것이 슬펐다. 그나마 이 글을 쓰는 현재는 많이 안정되었으나, 아직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두 자릿수 후반을 기록하는 등 방심하기엔 아직 많이 이르다. 한편,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지금도 수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거나 바뀔 예정이다. 이 사태가 일어난 2월부터 시작하여 이 글을 작성하는 현재까지, 10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외출 시 마스크 필수 착용과 손 소독이 더욱 중요해진 것은 물론, 밖에서는 최대한 간격을 유지하며 거리두기를 하고 지역 간 이동에 위험이 생기는 등 자유로운 활동이 거의 불가능해졌다. 앞서 말했듯이, 이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의 얼굴을 보지 못한 이유이다. 안 그래도 나는

반드시 외출해야 하는 경우(학교, 학원 등)를 제외하면 모든 날에 집에 틀어박혀 있었다. 하지만 필수로 외출해야 할 경우들까지 일시적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이 극심했던 때에는 건강관리가 더더욱 소홀해졌다. 언젠는 매일매일 집에 있으니 답답하고 무료함이 크게 느껴질 때도 있었다. 가끔 할 것이 떠오르지 않을 때 친구와 밖에 나가 놀기도 하며 스트레스도 풀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으니 정말 답답하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가장 크게 바뀐 개념은 따로 있다. 아니, 이것은 바뀌었다고 볼 수 없고 새로 생겨난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와 같은 학생들은 학교라는 밀집되고 접촉이 일어나기 매우 쉬운 공간에서 직접 대면하여 수업을 받기 어렵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명료했다. 바로 “비대면 활동”이다. 말 그대로 ‘대면’하지 ‘않’으며 하는 활동을 말한다. 나를 비롯한 학생들의 생활이 크게 뒤바뀐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다수의 인원들이 서로 실시간으로 화상 통화와 같은 기능을 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대표적으로 화상 회의 전용 앱인 ZOOM이 있다.) 등을 이용하여 수업을 듣거나, 수업을 진행하거나, 회의를 하는 등 수 많은 활동들을 하는 것이다. 혹은, 따로 영상을 제작하여 보여줌으로써 굳이 실시간으로 마주 보지 않고 활동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 대표적으로 EBS 온라인 클래스 등의 사이트를 이용한 비대면 원격 수업이 있다. 등교를 6월이 돼서야 했기 때문에 학교생활의 진도에 큰 지장이 있으리라 판단했으나, 다행히 이 방법을 통해 계속 수업을 진행했기에 그런 일은 없었다. 또한, 대면

수업과는 다르게 언제나 다시 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상시 복습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다. 수업 시간에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것이 선생님의 말씀이나 TV를 통해 틀어주신 영상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잠깐 딴청을 피우다가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불상사가 가끔 생긴다. 하지만 비대면 수업을 통해 그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다. 비대면 수업은 선생님들의 직접적인 통솔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면 수업에 비해 수업에 대한 집중도가 확연히 낮지만 위의 장점으로 보완이 가능하다는 점이 위안이다. 하지만, 공부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은 한 번 대충 보고 복습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 또한 있다. 그래도,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나 싶었는데, 온라인 비대면 원격 수업이라는 신개념 방법을 도입하여 염려가 됐었는데, 사회적으로 큰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고 지금까지 상당히 원활하게 사용하고 있으니 정말 잘 대처한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코로나는 앞서 상술했듯이 우리의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며 이질감이 크게 들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진다. 이제는 필수품이 된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어딘가 허전한 느낌이 들고 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한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리는 말이 아닐 수 없다. 그래도 아직 사태가 1년도 넘지 않았는데도 10개월 전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벌써 바뀐 것이다. 각종 매체에서 코로나 사태 종결 후 인간의 일상생활은 얼마나 바뀔 것인지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

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멈출 줄 모르는 지금으로서는 미래를 함부로 예상할 수 없을 것 같다. 많은 시간이 흐른 미래에는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 역시 평범한 일상의 하나가 되어 우리의 곁에 남아있을 것이다. 혹시 내년 이맘때쯤 이 백일장을 또 참가한다면 코로나가 종식되었다는 내용을 전하는 희망을 가져본다.

초등부 당선작

코로나와 나의 하루

초등부 대상

나의 무서운 친구

최 빛 찬

용정초등학교 1학년

8살이 되자 나쁘고 고약한 친구가 생겼다.

이 친구는 학교도 못 가게 하고 매일 집에서만 놀자고 하고, 마스크를 쓰고 손소독제로만 놀자고 한다.

나는 학교가 가고 싶고
친구들이 보고 싶고
놀이동산도 가고 싶은데...

코로나야!
이제 나 좀 그만 따라다녀!
나 이제 너랑 친구 안할테!
우리 이제 영원히 절교야!!



8	살	이	되	자	나	쁘	고	고	약	한
친	구	가	생	겨	다	이	친	구	한	집
학	교	도	곳	가	하	하	마	일		
에	서	만	놀	자	하	하	마	스	크	르
	쓰	고	손	소	독	제	만	자	고	
한	다	나	는	학	교	가	가	시	고	도
친	구	드	보	그	시	고	나	시	산	도
이	가	고	은	테	시	고	나	시	산	도
이	제	나	좀	그	만	만	다	너	!	!
나	이	제	너	랑	친	구	다	안	!	!
우	리	이	제	영	원	히	자	환	!	!!
							려	교	야	!!

초등부 은상

할머니 집 가는 길이 바뀐 날

김 건 우

그레이스아카데미 5학년

2020년 10월 토요일 날씨 : 좋음

할머니의 생신이어서 할머니님 집에 갔다. 할머니 집에 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버스를 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빠의 차를 타고 가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은 아빠가 일하셔서 버스를 타고 할머니 집에 갔다. 할머니 집에 가기전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나가려 하자 엄마께서 마스크를 쓰라고 하셔서 나는 당장 마스크를 썼다.

항상 편하게 가던 할머니 집인데 마스크를 써야 된다니 너무 불편하고 화가 났다. 그래도 할머니 생신이기에 꼭 참고 버스에 탔다. 버스에 타니 더 불편해진 마스크 때문에 답답했지만 할머니 집에 도착하고 할머니 생신을 축하해드려 기분이 좋았다.

2020년 10월 토요일 날씨 좋음



제목: 할머니 집 가는 길이 나귀날

할머니의 생신이어서 할머니집에 갔다. 할머니 집에 가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버스를 타는 것이고, 두번째는 아버지의 차를 타고 가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은 아버지가 일하셔서 버스를 타고 할머니 집에 갔다. 할머니 집에 가기전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나가려 하자 입가에서 마스크를 쓰라던 하셔서 나는 당장 마스크를 썼다. 항상 편하게 가던 할머니 집인데 마스크를 써야 된다니 너무 불편하고 화가 났다. 그래도 할머니 생신이기에 꼭 잡고 버스에 탔다. 버스에 타니 더 불편해진 마스크 때문에 답답했지만 할머니 집에 도착하고 할머니 생신을 축하해드려 기분이 좋았다.

초등부 은상

코로나도 봉사를 막을 수는 없어!

이 한 결

용현남초등학교 5학년

2020년 11월 1일 비랴만 따끔하게 불고 햇살은 봄 같은 날.

“아 지루해” 오늘도 우리 가족은 말이 마긁간에 갇혀 있듯 집에 있다. 바로 코로나 때문이다.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에는 우리 가족은 박물관에서 유물을 보기도 하고, 공원에서 캐치볼을 하기도 하고, 여행을 가서 그 고장의 특산물을 먹거나 그 지역을 둘러 보기도 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집 밖에 나가기가 힘들다. 그래서 나는 말이 뒤듯이 달리고 싶은데 나가지 못해 답답하다. 우리 가족은 매달 한 번 이상은 자원봉사를 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자원봉사 자체가 거의 없다.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 허전하다. 며칠 전, 어머니께서 색색의 뜨개실을 사오셨다. “우리 목도리 만들기 하자” 우리 가족은 대면하는 자원봉사 대신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드릴 목도리 만들기에 도전하기로 했다. 나는 갈색 실 동생은 겨자색을 엄마는 빨간색 실, 아빠는 잔심부름을 하기로 역할을 나누고 한코한코 목도리를 뜨기 시작했다. 오늘은 뜨개질하기 시작한지 3일 째다. 첫 날과 둘째 날은 손에 너무 힘을 주고해서 어깨가 뻐근했는데 지금은 손가락이 빨갛다. 동생하고는 누가 빨리 뜨개질하나 대결했다.

성급하게 하다가 내 코에서 하나의 실이 빠졌다. 그래서 목도리가 줄어들었다. 만든 것을 다니 풀으니까 기분이 나빴다. “아, 짜증나!” 동생보다 빨리 만들려다가 큰코다쳤다. 그래도 내가 만든 목도리가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목을 따뜻하게 한다고 생각하니 뿌듯했다.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을 많이 바꿔놓았다. 그래도 학교에서의 배움, 남을 도우려 하는 마음같은 본질은 바꾸지 못한다. 코로나가 아무리 무서워도 우리가 자기 자리를 지키다면 우리는 코로나를 이겨 낼 수 있다.

코로나도 봉사를 막을수는 없어 !



2020년 1월 1일 비록만 따깝하게
블고 햇살은 볼같은 날

“아 지루해” 오늘도 우리가족은 말이
다들간에 갖혀있듯 집에 있다. 바로
코로나 때때이다.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에는 우리가족은

박물관에서 유물을 보기도 하고, 공원에서 캐리발을 하기도 하고,
여행을 가서 그고장의 특산물을 딱거나 그지역을 둘러 보기도했다.
그런데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집 밖에 나가기 힘들다.
그래서 나는 말이 뜻듯이 달리고싶은데 나가지 못해 답답하다.

우리가족은 매달 한번이상은 자원봉사를 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자원봉사
자체가 거의 없다. 안하는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 리전하다.

머칠건, 어머니께서 생선의 뜨게실을 사오셨다. “우리목도리 만들기 하자” 우리가족은 대면하는
자원봉사 대신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드릴 목도리 만들기에 도전하기로 했다. 나는 갈색실 동생은
겨자색을 엄마는 빨간색실, 아바는 잔심부름을 하기로 역할을 나고 한코하고 목도리를 뜨기
시작했다. 오늘은 뜨게질하기 시작한지 3일 쯤이다. 첫날과 둘째날은 손에 너무 힘을 줘서
어깨가 뻐근했는데 지금은 손가락이 뻐갔다. 동생하고 누가 빨리 뜨게질 하나 대별했다.
성급하게 하다가 내코에서 하나의 실이 빠졌다. 그래서 목도리가 줄어들었다. 만든 것을 다시 풀으니가
기분이 나았다. “아, 짜증나!” 동생보다 빨리 만들어 다가 큰코다웠다. 그래도 내가 만든 목도리
가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목을 따듯하게 한다고 생각하니 부듯했다.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을 많이 바꾸어놓았다. 그래도 학교에서의

내음, 남을 도우려 하는 마음같은 본질을 바꾸지 못한다. 코로나가
어찌 무서워도 우리가 자기 자리를 지키다면 우리는 코로나를
이겨 낼 수 있다.



초등부 은상

나의 연보라 책가방

차 유 진

용현남초등학교 3학년

날짜 : 2020년 11월 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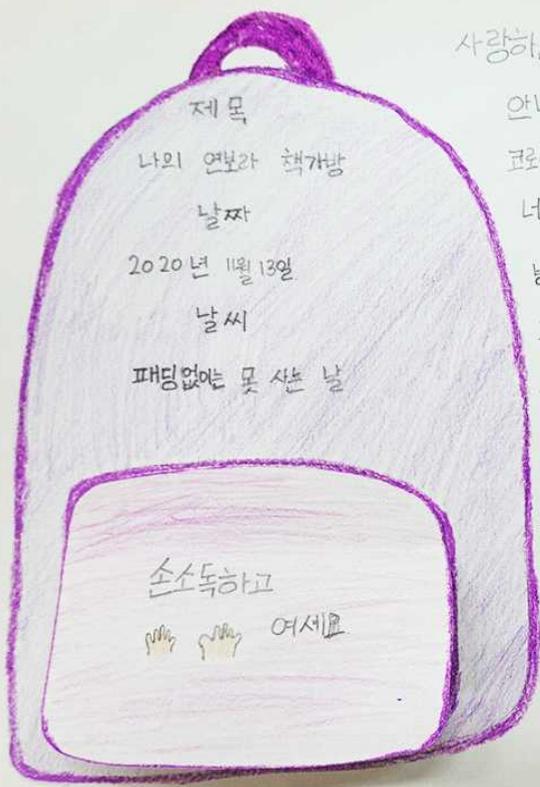
날씨 : 패딩 없이는 못 사는 날

사랑하는 나의 책가방에게 안녕?

코로나19 때문에 매일 등교하지 못해서 너를 많이 메고 다니지 못 했어. 방구석에 홀로 있느라 많이 심심하지?

코로나19 백신이 생기기 전 까지는 너를 자주 사용하지 못 할 것 같아. 많이 슬퍼하지만. 곧 있으면 백신이 만들어져서 일주일 내내 너를 메고 등교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우리 그때까지 꼭 참아보자.

너를 가장 아끼는 유진이가.



사랑하는 나의 책가방에게

안녕?

코로나19 때문에 매일 등교하지 못해서

너를 많이 데고 다니지 못했어

방구석에 홀로 있느라 많이 씁쓸하지?

코로나19 백신이 생기기 전까지는 너를 자주 사용하지 못 할 것 같아.

많이 슬퍼하지만 곧 있으면 백신이

만들어져서 임주일 내내 너를 데고 등교 할 수 있는

날이 올거야 우리 그때까지 꼭 잡아보자.

너를 가장 아끼는
유진이야

초등부 은상

태권도로 코로나 퇴치

이 한 비

용현남초등학교 2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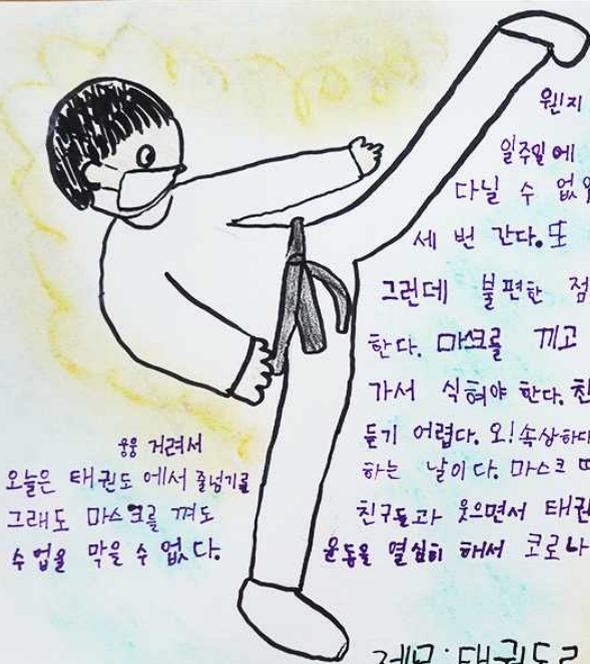
2020년 10월 30일 금요일

날씨 : 내 마음 만큼 맑음

오늘도 학교가 끝나고 태권도에 간다. 왠지 기분이 좋다. 코로나가 심각했을 때는 학교도 일주일에 한 번 가고, 내가 좋아하는 태권도 학원을 다닐 수 없었다. 코로나 1.5 단계가 되니 학교도 일주일에 세 번 간다. 또 태권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

그런데 불편한 점이 있다. 열 체크도 하고 손도 자주 닦아야 한다. 마스크를 끼고 노니가 땀이 찬다. 그래서 사람이 없는데 가서 식혀야 한다. 친구들이 중요한 얘기를 해도 마스크 때문에 웅웅 거려서 듣기 어렵다. 오! 속상하다.

오늘은 태권도에서 줄넘기를 하는 날이다. 마스크 때문에 호흡이 힘들어 모아 뛰기도 버겁다. 그래도 마스크를 꺼도 친구들과 웃으면서 태권도 수업을 하니 코로나도 마스크도 나의 태권도 수업을 막을 수 없다. 운동을 열심히 해서 코로나를 이겨 내겠다.



흥겨워서
오늘은 태권도에서 출렁기를
그래도 마스크를 꺼도
수업을 막을 수 없다.

오늘도 학교가 끝나고 태권도에 간다.
원지 기분이 좋다. 코로나가 심각 했을 땐 학교도
일주일 에 한 번 가고, 내가 좋아하는 태권도 학원을
다닐 수 없었다. 코로나 1.5단계가 되니 학교도 일주일에
세 번 간다. 또 태권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

그런데 불편한 점이 있다. 열 체크도 하고 손도 자주 닦아야
한다. 마스크를 끼고 노니가 땀이 찬다. 그래서 사람이 없는데
가서 식혀야 한다. 친구들이 중요한 얘기를 해도 마스크 때문에
듣기 어렵다. 오! 속상하다.
하는 날이다. 마스크 때문에 호흡이 힘들어 모아 뛰기도 버겁다.
친구들과 웃으면서 태권도 수업용하니 코로나도 마스크도 나의 태권도
운동을 열심히 해서 코로나를 이겨 내겠다.

제목: 태권도로 코로나 퇴치

2020년 10월 30일 금요일 날씨: 내 마음 만큼 맑음.

초등부 동상

코로나 물러가라!!!

윤 시 은

학산초등학교 2학년

오늘은 학교에 가는 날이다. 서연이와 학교에 갔다. 요새는 학교 생활과 많이 다르다. 왜냐면 학교 책상에 칸막이도 있고 급식실에서도 앞에 투명 필름으로 막놓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친구와 모둠도 만들어 활동하고 쉬는시간 10분 동안 친구들과 놀기도 했는데 지금은 잠깐 도서관이랑 화장실만 갔다온다. 얼른 코로나 바이러스 끝났으면 좋겠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더 적어서 다행이다.

이젠 온라인 수업도 재미없다. 매일 가만히 앉아서 컴퓨터 보면서 교과서 문제 푸는게 쉽지가 않다. 처음에는 재미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힘들다. 얼른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다. 친구들과도 신나게 놀고 가족들과 외출도 하고 마스크도 안 쓰는 그런 나라가 다시 되었으면 좋겠다.

바이러스 물러가라!!!

초등부 동상

특별한 하루

강 승 아

용학초등학교 3학년

날짜: 2020년 11월 2일

날씨: 비가 청소한 다음날

뉴스에서 코로나19라는 말이 나온 뒤 학교는 긴 방학을 하게 됐다. 봄, 여름, 가을이 지나, 완전한 개학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세 번 학교에 나갈 수 있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오빠랑 학교 가는 날이 달랐는데 이번엔 월요일마다 특별한 하루가 생겨 너무 좋았다. 작년엔 같이 가는 게 당연했는데 혼자 가다보니 너무 심심하고 외로웠다. 코로나는 학교도 못 가게 하고, 친구도 못 만나게 하는 나쁜 바이러스라고만 생각했는데, 오빠가 내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려줘 조금 덜 미워하기로 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오빠랑 손도 잡고 발도 맞춰 걸으니 이 길이 혼자 갈 때랑 다르게 짧게 느껴졌다. “오빠, 엄마는 왜 우리가 학교 가는 날을 좋아할까?” 라고 물으니 “그러게 아줌마들이랑 비밀 통하하냐?” 라고 대답하며 둘이 마스크 밖으로 종일종알 소리를 내며 걸어갔다. 어느새 교문 앞에 도착해 한 줄로 거리를 두며 걸어가야 하는 데 오빠가 “내가 너 뒤에 갈게.” 라며 걱정하지 말라는 눈빛을 보내줬다. 이럴 땐 날 놀리던 오빠가 아닌, 날 지켜주는 멋진 오빠가 된다.

오빠랑 함께 하는 이 시간이 하루가 아닌 매일 매일이 되면 좋겠다. 코로나야, 이제 우리 모두 손도 깨끗이 씻고, 마스크도 잘 할게. 가주면 안될까? 오빠랑 같이 갈수 있게 말아야. 코로나야, 이제 안녕!!



난 아침에 피곤하게 눈을 뗐다. 시계를 보니 8:00였다. 나는 침대에 더 누워 있다가 밥을 먹고 갈 준비를 하고 엄마를 기다렸다. 나하고 엄마하고 준비를 끝내고 마스크도 잘 쓰고 학산문화회관 가서 집을 풀고 연극 연습을 했다. 역시 내가 생각해도 연기를 너무 못한다. 그래도 열심히 연습을 했다.



주제는 코로나였다. 연극 연습을 하는데 짜잔 라면 물이 끓여졌다. 거기에 김밥까지 있어 엄청 배부르게 먹었다. 무대에 오르려면 화장해야 하는데, 처음으로 피부화장을 했는데 와 조금 괜찮았다. 연습하고 연습하고 먹고 쉬고 놀고 또 연습하고 아니 시간이 벌써 4:30분이었다.

위로 올라가 무대 준비하고 예비로 찍어봤는데 너무 힘들었다. ㅠㅠ 실전으로 2번 찍었는데, 잘 나왔을려나, 뭐라해야하나 보는 사람은 찍는 사람 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뭔가 그래도 누군가를 만나서 같이 있었던건데 예전에는 일상이었던 건데 엄청 기뻐다. 이런 소소한 게 재미있고 보람찼다

모든 일이 끝나고 다 함께 밥먹으러 갔다. 저녁이어서 많이 먹으면 살찌서 조금 먹으려고 했는데 했는데, 너무 맛있어서 그만 너무 많이 먹었어!! ㅠㅠ 으헝!

집에 돌아와 이 그림일기를 쓰고 세수하고 침대에 누웠는데 와, 나 내일 학교가는데 너무 늦게 잠을 자다니 와 망했다. 허허허~ 피곤하다.

초등부 동상

일상의 회복을 꿈꾸며

이 주 혁

인주초등학교 6학년

코로나가 사람들 몰래 숨어 살고 있다.
점점 코로나는 사람들에게 달라붙어 아프게 한다.
우리와 살고 싶은가 보다. 같이 살고 싶으면 우리를 괴롭히면 안 되지
왜 우리를 괴롭히는 걸까?

코로나는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어른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거리두기를 하며 일을 하신다.
학생들은 EBS 교육방송이나 e학습터 같은 온라인 강의 수업과 화상수업으로 공부를 한다.
사실 나는 아침 조화와 수업을 병행하는 화상수업의 종례는 친숙하지 않다. 예전처럼 학급에서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 함께 배우며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 노는 것이 더 즐겁다.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할까?
선생님도 답을 알려 주시지 못하는 문제 같다.
대신 선생님은 우리 교실을 소독하시고 우리의 열을 체크해 주시고,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주시며 안전교육에 더욱 힘써 주신다.

너무도 그리운 평범한 일상! 너무도 그리워진다.
의료진 덕분에! 선생님 덕분에! 모두의 노력 덕분에!
내가 그리워하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꺼라 희망한다.



오늘 나는 동생들과 수봉소극장에서 사물놀이 이야기를 봤다.
내용은 소리꾼이 책을 읽어주고, 연주자들은 연주를 하는 형식이었는데
오랜만에 보는 공연은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공연이 끝나고 국악회관 야외공연장에서 동생들과 술래잡기를 하며 놀았다.
또 은율탈춤전수관 뒤편으로 내려가 보았는데 전망대가 있었다.
미세먼지 때문인지 잘 보이지는 않았다. 알록달록 단풍이 든 나뭇가지는 예뻐다.
까치는 다른 새가 옆으로 날아오자 "패애액" 하고 소리를 질렀다. 신기하게 웃음이 나왔다.

우리는 엄마와 여동생을 만나서 수봉산 놀이터에 갔다.
단풍길을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소풍 같았다.
막내 동생과 남동생은 수봉산 놀이터에서 재미있게 놀았고,
큰 누나의 해금 수업이 끝날 때 내려가서 누나랑 집에 돌아왔다.
코로나로 바뀐 일상 속이지만 행복은 여전히 괴어나는 것 같다.
모두 안녕히 건강히 다시 만나요.

2020. 11. 14. 일기 끝.

초등부 동상

태권도와 코로나

한 동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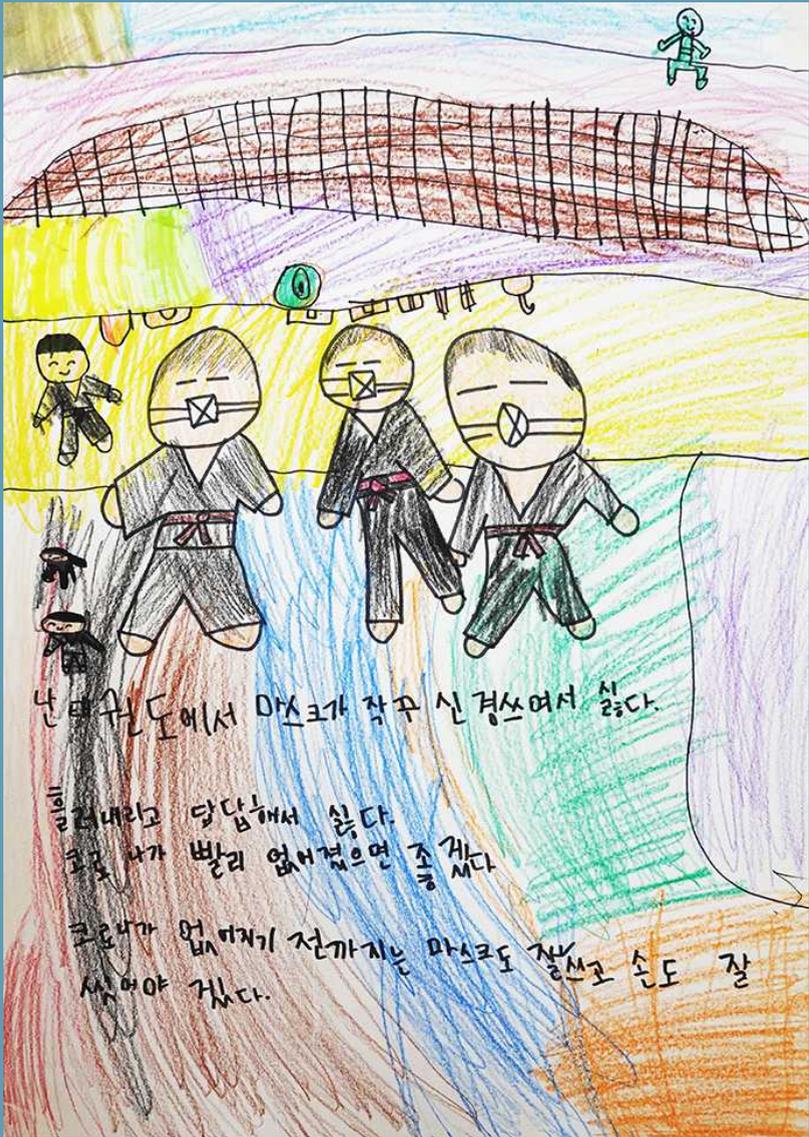
인주초등학교 2학년

난 태권도에서 마스크가 지루 신경쓰여서 싫다.

흘러내리고 답답해서 싫다.

코로나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코로나가 없어지기 전 까지는 마스크도 잘 쓰고
손도 잘 씻어야겠다.



초등부 동상

코로나로 시작된 내 모습

황 규 한

용학초등학교 3학년

마스크를 쓴지 벌써 약 8개월이 되었다.
그래서인지 어느새 마스크에 익숙해졌다.
하지만 마스크 때문에 생긴 불만도 만만치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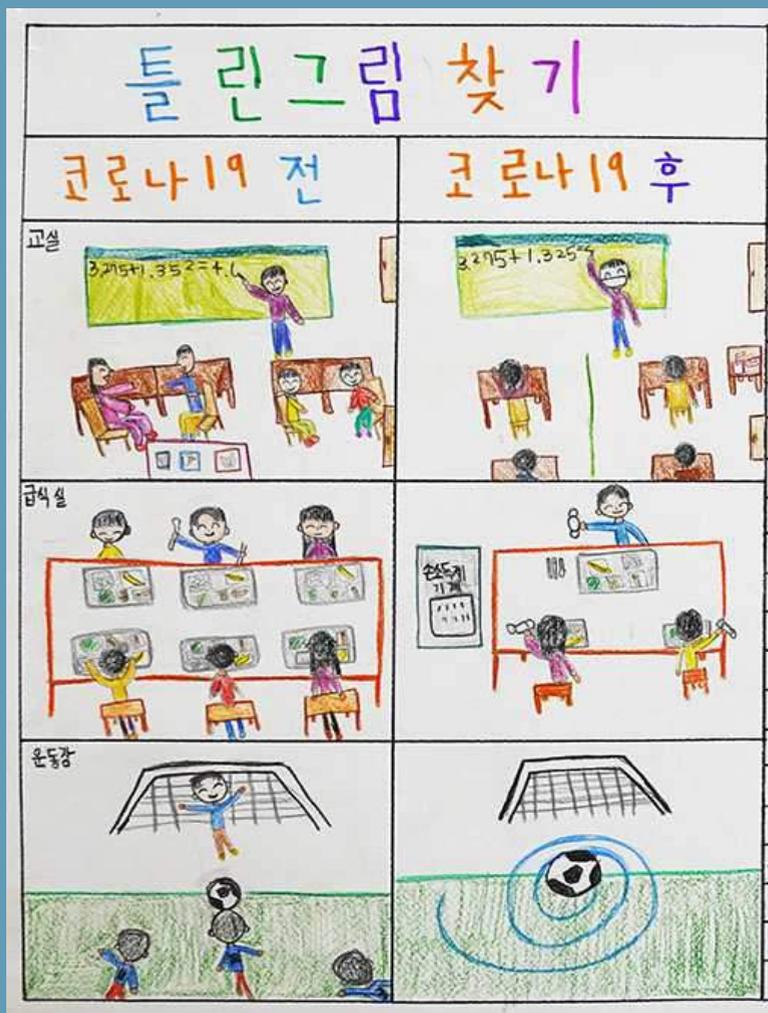
그 불만 때문에 난 정말이지 코로나가 생기지 않은 나라로 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그래도 요즘은 학교에 3일이나 갈 수 있어서 좋다. 예전에는 하루밖에 안가거나, 아예 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진 않겠지만 내 할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코로나 때문에 게을러지고 있는 수업을 할 때 딴 생각도 많이 하게 된다. 코로나처럼 당장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봐야지!



		◀	코로나로	시	지	된	내	모	습	▶		
다	마	스	크	를	쓴	지	번	서	약	8	개	월
다	그	래	서	인	지	어	느	새	마	스	크	에
다	하	지	만	마	스	크	때	문	에	생	긴	불
만	치	않	았	다	그	불	만	때	문	에	난	정
지	코	로	나	가	생	기	지	않	은	나	라	로
실	었	지	만	그	럴	수	가	없	었	다	그	래
은	학	교	에	3	일	이	나	갈	수	있	어	서
예	전	어	는	하	루	밖	에	안	가	거	나	아
없	었	기	때	문	이	다	코	로	나	가	번	리
야	개	기	만	내	항	일	을	열	심	히	해	야
생	각	할	다	코	로	나	때	문	에	게	올	리
권	나	갈	다	시	뵈	잠	을	장	도	때	도	그
수	업	을	할	때	판	생	각	도	만	이	하	게
다	코	로	나	저	럼	다	장	중	아	지	지	는
최	선	을	다	해	바	야	지	!				

초등부 동상

180도 달라진 학교



박지원

연학초등학교 4학년

2020년 11월 13일 금요일

제목: 180도 달라진 학교

드디어 기다리던 4학년이 되었다.
4학년 때는 답사도 많이 하고,
다양하고 재미있는 모둠활동을 한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친구들과 접촉도 못하고
기대한 것들도 취소가 되어 아쉬웠다.
코로나19로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다가
학교에 가니 전혀 다른 학교처럼 여신했다.
수업 중에도 교실에서 거리두기 친구들과의 접촉이 금지되고,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다니던 운동장은
아무도 없는 쓸쓸한 모습의 운동장이 되었다.
친구들의 이야기 소리로 시골 백적하던 급식실은
한 칸씩 뛰어 앉아 조깅한분위기에 믿없이 점심을 먹는다.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의 모습은
마치 틀린그림찾기를 하는 것처럼
180도 달라진 학교의 변화가 엄청나게 느껴진다.
반갑지 않은 코로나로 기대가 많았던
4학년 생활에 아쉬움이 많았다.
빨리 코로나19가 사라지거나 치료제가 나와서
2021년 5학년에는 다시 예전처럼 지내고 싶다.
인천 연학초등학교 4학년 박지원

초등부 동상

어항을 만드는 날

송 시 우

용학초등학교 2학년

2020년 11월 5일 목요일 날씨(맑음)

오늘은 등교하는 날이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공부하는 것이 조금 힘들기는 해도 온라인 학습보다 등교하는 것이 더 재미있다.

오늘은 학교에서 어항 만들기를 했다. 유리병에 자갈도 넣고 아이비리는 작은 식물도 넣었다. 그리고 구피라는 작은 물고기를 넣어서 어항을 완성했다. 물고기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니 흐뭇했다.

나도 코로나가 끝나면 어항 안에서 즐겁게 헤엄치는 물고기들처럼 마스크 없이 친구들과 서로 장난도 치고 신나게 뛰어놀고 싶다.

그런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

제목 : 어항을 만드는 날

(2020)년 (11)월 (5)일 (목)요일 날씨 (맑음)



오	날	은	등	피	하	는	날	이	다.	코	로	나	때
문	에	마	스	크	를	쓰	고	공	부	하	는	것	이
조	금	힘	늘	기	는	해	도	온	라	인	학	는	트
등	고	하	는	것	이	더	재	미	있	다.			
	오	늘	은	학	교	에	서	어	항	만	들	기	를
다.	유	리	행	에	자	갈	도	널	고	아	이	비	라
식	물	도	포	었	다.	그	리	고	구	피	라	는	작
물	고	기	를	볼	어	서	어	항	을	완	성	했	다.
고	기	들	이	즐	겁	게	노	는	모	습	을	보	니
하	못	했	다.										
	나	도	코	로	나	가	끝	나	면	어	항	안	에
즐	겁	게	헤	엄	치	는	물	고	기	들	처럼	마	스
업	이	친	구	들	과	서	로	잠	난	도	치	고	신
나	게	뛰	어	날	고	싶	다.	그	런	날	이	하	루
발	리	왔	은	편	을	즐	거	다!					

초등부 동상

바닷가 나들이

황 아 민

용현초등학교 3학년

8월 25일

햇빛 짹짹 코로나 2.5 단계

오늘은 오랜만에 아빠가 쉬는 날이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바닷가로 놀러 갔다. 엄마는 코로나 때문에 식당에서 점심은 못 먹는다고 아침부터 김밥을 만들었다. 바닷가에 도착해서 우리는 돛자리와 도시락을 들고 해변가로 갈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돛자리는 안된다고 해서 짐을 차에 다시 두고 바닷가로 갔다.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고 놀고 있었다. 아빠랑 동생이랑 갯벌에서 게랑 조개도 잡고 바닷물에 발도 담그며 놀았다. 점심 때쯤 배가 고파서 우리는 아빠차 트렁크를 열어 거기서 돛자리를 펴고 김밥과 유부초밥을 맛있게 먹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신기하게 쳐다보았다. 점심을 먹고 나서 갯벌에 다시 갔다. 오랜 시간 동안 마스크를 끼고 조개를 캐더니 답답하고 힘들었다.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마스크를 안 껴면 좋겠다. 그래서 친구들과 바닷가에 다시 와서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다.

날짜: 8월 25일

날씨: 햇빛 쨍쨍

코로나2 5단계



바닷가 나들이

오늘은 오랜만에 아빠가 쉬는 날이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바닷가로 놀러 갔다. 얼마전 코로나 때문에 식당에서 점심은 못 먹었다고 아침부터 김밥을 만들었다. 바닷가에 도착해서 우리는 돛자락과 도시락을 들고 해변가로 걸리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돛자리는 안 된다고 해서 짐을 차에 다시 두고 바닷가로 갔다.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고 놓고 있었다. 아바랑 동생이랑 갯벌에서 게랑 조개도 잡고 바닷물에 발도 담그며 놀았다. 점심때쯤 배가 고파서 우리는 아바차 트렁크를 열어 거기서 돛자리를 펴고 김밥과 우부조밥을 맛있게 먹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신기하게 쳐다보았다. 점심을 먹고 나서 갯벌에 다시 갔다. 오랜시간동안 마스크를 끼고 조개를 캐는데 담당하고 힘들었다. 빨리 코로나가 없어 가서 마스크를 안 끼면 좋겠다. 그래서 친구들과 바닷가에 다시 와서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다.

용현초등학교 3학년 8반 황아민
(010-2407-3778)

백일장 수상작에 담긴

일상의 심오함

나기너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제1회 학산백일장 <미추홀, 안부를 묻다>는 이른바 ‘코로나 시대의 일상’을 담고자 한 의미있는 시도이다. 동시대인들이 지금껏 겪어 본 적 없는 공포스런 감염병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를 공격하는 지금, 환란으로만 여기지 않고 일상의 삶 속에서 공감과 소통을 넓히고, 지혜를 구하며 서로를 북돋아주기 위한 미추홀학산문화원의 노력이다. 초등부, 청소년부, 일반부의 구분은 역시나 이유가 있었다. 나이에 따라 보는 눈, 표현하는 방법, 미래의 바람이 다를 수 밖에 없었다.

물론 모든 수상작에는 당황스러움이 깔려있다.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당황스러운 상황을 겪으며 어쩔 줄 몰라하는 마음,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맘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담아 글을 써내려갔다. 그리고 이 재앙이 궁극적으로는 ‘인간’에게 있음을, 지나친 탐욕과 절제의 부족에서 기인했다는 것을 차분히 성찰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래서인지 어떤 글에도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지는 않다. 오히려 차분한 성찰을 하면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지만 긍정적인 일상의 변화를 찾아본다거나, 일상의 소중함을 새삼스럽게 환기하고 있다.

글에는 일상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우리 생활주변에서 늘 만나고, 접하고, 겪는 그 모든 일상들이 이제는 새롭기만 하다. 버스나 지하철이 그렇고, 병원과 약국이 그렇고, 시장과 대형마트가 그렇다. 가끔 시켜먹던 음식들과 배달음식을 받는 내 스스로가 새롭다.

일상의 공간도 담겨있다. 밖에서 맘껏 뛰어 놀 수 없고 학교가서 친구들하고 지낼 수 없는 안타까움, 운동도 산책도 쉽게 할 수 없는 두려움, 공연이나 전시는 더더욱 엄두도 못내는 막막한 일상들은 우리의 삶을 팍팍하게 한다.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라고 하는 혼례, 즉 결혼식에도 하객을 편하게 부를 수 없거나, 결혼식 자체를 연기하고 생략하고 있는데 무엇을 바라겠는가. 사람간의 대화는 줄어들고, 공간은 닫히고 있다.

그렇다고 세상이 조용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인류가 일구어 온 디지털 환경은 환란을 이겨낼 수단을 제공해 주고 있다. 가족의 존재,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 느낀다. 나와 내 가족이 소중하듯이 친구와 이웃의 삶도 소중하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

이 드는 것 또한 새삼스럽다. 그러게 사람들은 변화된 일상에서 사색과 사유를 하고 있다. 그 생각의 끝은 사람으로 향하고 있다. 앞으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재난을 겪는 우리의 자세이다. 이제는 서로에게 건네는 하루 하루 묻는 안부인사가 형식적일 수 없다.

“안녕?” “안녕하세요?” “응” “우리 모두 안녕합니다.” 일상적인 인사 한 마디 한 마디에 마음을 담는다. 그렇게 미추홀에서의 일상을 담은 주민들의 글은 미추홀의 안부를 묻고 있고, 미추홀의 안녕을 다짐하고 있다.

2020년 12월
(협)이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

미추홀, 안부를 묻다 **일상** 22

2020년 12월 30일 발행

펴낸이 정형서
펴낸곳 인천광역시 미추홀학산문화원

기 획 인천광역시 미추홀학산문화원
 협동조합 이카이빙 네트워크 연구원
디자인 스튜디오수집

 인천광역시 미추홀학산문화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126
Tel. 032-866-3993~4
haksanculture.or.kr

ISBN 979-11-968891-5-9
ISBN 979-11-968891-0-4 (세트)